2018년 제1회 평택3·1만세운동 학술토론회

경기남부 3·1운동과 평택3·1운동 조명

일　　시 : 2018년 2월 8일(목), 오후 2시
장　　소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세미나실(1층)
주최/주관 :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후　　원 : 평택시·평택시의회·평택문화원

진 • 행 • 순 • 서

■ 1부/개 회(14:00~14:20)

행사사회 : 최원길/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사무국장

개회사 ▌ 정수일/평택3·1독립운동선양회장

축 사 ▌ 공재광/평택시장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 김은호/평택문화원장

■ 2부/포 럼(14:20~16:20)

토론회 좌장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기조발제 ▌ 성주현/청암대학교 연구교수
▌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장연환/효명고등학교 교사
▌ 김대용/안성3·1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 이혜영/화성시 학예연구원

지정토론 ▌ 조성운/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연구원
▌ 황수근/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 홍원의/안성시 학예연구사
▌ 한동민/수원화성박물관 관장

종합토론 ▌ 참석자 모두

■ 3부/폐회·공지(16:20~16:25)

행사사회 : 최원길/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사무국장

차 • 례

■ 인사말

평택3·1운동의 학술적 조명으로 성역화 사업의 디딤돌이 되길… 4
▌정수일/평택3·1독립운동선양회장

■ 기조발제문

경기남부지역 3·1운동의 전개와 특성 5
▌성주현/청암대학교 연구교수

평택 3·1운동의 성격과 특징 25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장연환/효명고등학교 교사

안성 3·1운동의 특징과 기념사업 44
▌김대용/안성3·1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화성 3·1운동과 100주년 기념사업 61
▌이혜영/화성시 학예연구원

■ 지정토론문

지정토론 ▌조성운/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연구원 81

▌황수근/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85

▌홍원의/안성시 학예연구사 89

▌한동민/수원화성박물관 관장 95

인 사 말

평택3·1운동의 학술적 조명으로 성역화 사업의 디딤돌이 되길…

가장 광포했던 만세운동으로 알려진 평택의 3·1운동에 대한 학술적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깊이 있는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평택의 3·1운동에 대해 학술적인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우리 평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평택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성역화 하는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평택지역의 3·1운동은 일제가 '가장 광포狂暴한 만세시위'로 인식했던 것처럼 어느 지역보다도 뜨겁게 진행됐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평택의 3·1운동은 모두 22회에 걸쳐 6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망 64명, 부상 174명, 일제 경찰에 체포 257명 등 전국 3대 항쟁지에 버금가는 만세운동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평택지방의 3·1운동은 인근 화성·안성·천안의 만세운동보다 앞선 것이며, 안성의 원곡·양성 만세시위에도 적지 않은 평택 주민이 참여하는 등 인근지역 3·1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강렬했던 평택지방 3·1운동을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만세운동 유적지를 성역화하기 위한 용역이 평택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뤄지는 학술토론회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과 기조발제,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학계 전문가 분들과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평택시, 평택시의회, 평택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이 화성지역과 안성지역 등 경기남부지역의 3·1만세운동을 조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택에서 일어났던 3·1만세운동의 전개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밝혀 의미를 새롭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평택시민들에게도 새로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8일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회장 정수일

기 조 발 제 ①

경기남부지역 3·1운동의 전개와 특성

기조발제자 / 성 주 현
청암대학교 연구교수

1. 머리말

3.1운동 1백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중심에서 있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에 참여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는 백주년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다양한 활동하고 있다. 3.1운동은 이후 민족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하였다. 3.1운동 직후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매년 3월 1일이면 기념식을 거행하고 독립의식을 고양하였다.[1] 해방 이후에는 헌법의 전문에 아로새길 정도로 그 위상을 평가를 받고 있다.

3.1운동은 아시다시피 1919년 3월 1일부터 5월까지 약 3개월여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한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민족자결주의의 대두, 일본 유학생의 2.8독립선언, 그리고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의 고양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묶은 종교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역할이 핵심이었다. 3.1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2.8독립선언이었다. 2.8독립선언에 참여하였던 송계백이 독립선언서 초고를 가지고 국내에 왔고, 후일 민족대표로 서명한 최린이 이를 보고 오세창, 권동진 등과 함께 손병희의 쾌락을 얻은 후 천도교는 보다 구체적으로 3.1운동을 추진하였다.[2]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태화관에서 가진 민족대표의 독립선언과 탑골공원의 만세시위로 시작된 3.1운동은 전국 주요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면 리 단위의 농촌지역에까지 파급되었다. 그리고 각지의 만세시위는 일회성의 단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지방의 대부분은 장날을 이용하여 5월까지 계속되었다. 또 참가 계층을 보면 천도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가 주체가 되었으며, 이에 청년 학생, 주민과 노동자가 가담함으로써 전 민족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경기도는 서울과 근접한 지역으로 탑골공원 만세시위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천도교와 기독

1)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 3월 1일을 맞아 거국적인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은 3·1운동 1주년을 맞아 사설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볼 그리운 이 3월 1일, 이스라엘인의 정월 14일(逾越節)이나 미국민의 7월 14일(獨立日)과 안 바꿀 귀한 3월 1일. 이 3월 1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존권은 영원히 剝奪되리라. 또 심령상 발달은 恆久히 장애되리라. 민족적 존영도 훼손되고 말리라. 아! 얼마나 보배로운 3월 1일"이라고 하여, 3·1운동의 의미를 밝혔다.(「三寶」, 『독립신문』 1920년 3월 6일). 또한 임시정부 축하식에서 손정도 의정원의장은 "금일은 유사 이래 처음 되는 差辱을 당한 우리가 역사의 권위와 민족의 衷誠을 합하여 세계에 독립을 선언한 제1회 기념일이라"라고 밝혔다.

2) 현상윤, 「3·1운동의 회상」, 『신천지』 제1권 제2호, 서울신문사, 1946.3, 27-28쪽. 현상윤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최린씨는 천도교가 움직인다할지라도 천도교만으로는 힘이 약하니, 널리 社會知名之士를 규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으로 나는 최남선씨를 往訪하여 찬동을 구하였다. 그러나 최씨 역시 최초에는 自重論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 時에 마침 동경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하기로 하고 그 밀사로 송계백군이 경성으로 와서 나를 來見하고 帽子 內皮 속에 넣어가지고 온 선언서의 초본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최남선 송진우 양씨에게 輪示하였다. 그러한 즉 이것을 본 최남선씨는 심기일전하여 운동에 참가할 것을 快諾하였다. 나는 다시 이것을 가지고 최린씨에게 보인즉 최씨는 다시 權臭 양씨와 손병희씨에게 보였다. 손씨는 이것을 보고 "젊은 학생들이 이 같이 의거를 감행하려는 이때에 우리 선배들로서는 좌시할 수 없다" 하면서 운동의 결의를 하고 구체적 방법을 최씨와 권오 양씨와 정광조씨에게 일임하였다. 이 결과로 우리(최린, 최남선, 송진우 삼씨와 나)는 손씨의 승낙이 있은 날 밤에 비밀히 최린씨 댁에 회합하여 축하의 술잔을 나누면서 야심토록 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였다."

교 등 종교조직과 학생들, 그리고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하였다가 직접 목격한 인사들에 의해 광점위한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3일 개성을 시작으로 시흥, 진위(평택), 안성, 강화 등 도내 22개 부군에서 참여하였으며, 당시 경기도에 속한 서울을 포함하여 3백여 회에 가까운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본고에서는 3.1운동 당시 경기남부지역[3]에서 전개된 3.1운동의 과정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경기지역 3·1운동의 전개

경기도의 3.1운동은 발원지인 서울과 인접한 관계로 서울부터 가까운 곳으로 먼저 파급되었고, 4월 하순까지 2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끈기 있게 전개되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하였고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서울과 같이 경기도에서 첫 시위를 한 곳은 3월 1일 수원군 북문 용두각 만세시위였다.[4] 그 뒤를 이어 3월 3일 개성(開城), 7일 시흥(始興), 9일 진위(振威)와 인천(仁川), 10일 양평(楊平)과 안성(安城), 13일 강화(江華), 14일 양주(楊州), 15일 가평(加平), 21일 연천(漣川), 22일 김포(金浦), 23일 고양(高陽), 24일 부천(富川)과 장단(長湍), 26일 파주(坡州)와 광주(廣州), 29일 용인(龍仁)과 포천(抱川), 31일 이천(利川), 4월 1일에는 여주(驪州) 지역이 차례로 만세시위를 전개함으로써 경기도내 22개 부군(府郡)에서 모두 참여하였다. 이들 지역 중 경기남부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수원, 시흥, 평택, 안성, 광주, 용인, 이천, 여주 등 8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서울과 같이 3월 1일 만세시위를 전개한 곳은 수원군[5]이었다. 그런데 이날 만세운동에 대해서 논란이 없지 않다. 다만 이날의 상황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수원은 서울과 인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연결되어 있어 독립선언서 및 만세운동의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인 김세환이 2월 중순부터 만세시위운동을 준비하였다. 더욱이 김세환은 1919년 2월 말 전국적인 만세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수원상업강습소에서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 김세환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세시위 계획을 설명하고 수원에서 서울과 같이 3월 1일 정오 삼일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이 미리 감지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이날 3월 1일의 거사를 저녁 횃불시위로 대체하기로 하였다.[6] 이에 따라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자 이날 저녁 수원 북문 용두각에서 수

3) 본고에서는 3·1운동 당시의 경기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지역별 3·1운동을 개괄하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에 대해 각주로서 언급하고자 한다.
4) 수원의 첫 만시세위인 북문 용두각 횃불시위는 이병헌의 『3.1운동비사』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병헌의 『3.1운동비사』가 오류가 많다는 점이다. 필자가 검토한 지역은 평택과 전주인데, 이 두 지역의 만세시위는 적어도 3,4군데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원의 3월 1일 만세시위는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3·1운동 당시의 수원군은 현재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로 개편되었다.
6) 이제제, 「수원지방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와 동향」,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3.1운동 84주년 기념학술심포지움 발표집, 수원문화원, 2003, 13쪽

백 명이 모여 횃불시위를 펼쳤다.[7] 이날 밤 화성 동쪽 봉수대에 횃불이 올랐고, 이를 신호로 만세시위가 확산되어 팔달산 서장대를 비롯하여 20여 곳의 성곽에서 일제히 봉화가 타올랐다.[8] 그러나 이날 이후 수원읍을 중심으로 하는 만세시위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이는 시위를 주도하였던 김세환, 김노적, 박선태, 이선경 등 60여 명이 3월 1일 횃불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일경에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김세환은 서울로 압송되었고 김노적,[9] 박선태 등은 심한 취조를 받았다.[10]

수원군에서 만세시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3월 중순 이후였다. 먼저 3월 16일 장날을 기해 수백 명이 만세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날 시위는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연무대에서 각각 수백 명의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종로를 향해 몰려들었다.[11] 당시 시위의 주도는 청년 학생과 기독교와 천도교 등 종교인이었다. 이는 이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천도교당에 난입하여 천도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 폭행하였으며, 김세환이 학감으로 있던 기독교계 학교인 삼일여학교에도 습격하여 사무실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12]

3월 중순부터 수원읍을 중심으로 불붙듯이 일어난 만세시위는 3월 25일 장날을 맞아 더욱 거세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청년 학생들이 전면에 나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는데, 29일에는 3백여 명의 군중이 격렬한 시위를 벌여 관공서와 일본인 민가 여섯 채를 파괴하기도 하였다.[13]

수원군 송산면에서는 3월 26일 홍면(洪冕)의 주도로 2백여 명이 면사무소 앞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렸으며, 3월 28일에는 약 7백여 명의 주민이 동산면 뒷산에 모여 대규모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일제 경찰이 출동하여 홍면 등 지도자에게 발포하여 홍면이 중상을 입자 시위군중들은 일제 경찰 노구치(野口)를 타살하였다.[14] 이어 3월 29일에는 성호면 오산 시장에서 약 8백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했는데, 일제 경찰이 만세시위 주도자 2명을 연행해 가자 시위 군중들은 주재소에 밀려가 구속자를 탈취하고 면사무소와 우편소를 습격하였다.[15]

장안면과 우정면의 주민들은 사전에 전체 주민이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키기로 연락하고 4월 3일 조암 장터에 약 2천여 명의 주민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규모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16] 시위 군중들은 장안면사무소로 진출하여 김현묵 면장에게 '독립만세'를 부르게 한 다음 다시 우정면사무소로 행진하여 면사무소를 접수한 후 서류들을 불태워 버리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열광적인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군중들은 다음 화수리 주재소로 행진하여

7)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68쪽.
8) 이제제, 앞의 글, 155쪽.
9) 김노적이 수원니역 3.1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중언은 많이 있지만 확증적 자료는 보이지 않고 있다.
10) 「김노적과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증언자료)」, 『수원문화사연구』5, 수원문화사연구회, 2002, 172-173쪽.
11) 이병헌, 앞의 책, 868쪽.
12) 이병헌, 앞의 책, 868쪽.
13) 「1910년대 항일독립운동과 3.1운동」,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292쪽.
14) 이병헌, 앞의 책, 869쪽. 송산면의 3.1운동에 대해서는 박환,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의 3.1운동」, 『정신문화연구』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를 참조할 것.
15) 이병헌, 앞의 책, 869쪽.
16) 우정면과 장안면 3.1운동에 대해서는 이정은, 「화성군 우정면과 장안면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4, 수원문화원, 2001을 참조할 것.

독립만세를 부르자 일경은 시위 군중에게 발포하여 1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분격한 시위 군중들은 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순사 가와바다(川端)을 타살하고 주재소를 불태워 버렸다. 일제는 수원 헌병대를 출동시켜 지도자 차희식, 차병혁 등 수십 명의 주민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향남면에서는 4월 5일 발안 장날을 기하여 약 1천 명의 주민들이 장터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흥군[17]에서는 영등포읍에서 3월 7일 시흥공립보통학교의 동맹휴학과 첫 만세시위가 있었으며, 이후 3월 23일과 29일, 그리고 30일에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서면에서는 3월 27일 시위가 일어났는데 하리의 이정석이라는 지도자를 일제 경찰이 주재소에 연행해 가자, 이튿날인 28일 주민 약 5백 명이 몽둥이를 들고 주재소를 포위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수암면에서는 3월 30일 18개 동리에서 약 2천명의 주민이 집합장소인 수암리 비석거리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른 다음 시흥읍까지 진출하여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또한 과천면 하리에서도 3월 30일 밤 주민 약 50명이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과천읍에 도착해서 주재소와 면사무소, 우편소, 보통학교 등을 돌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군자면.남면.신동면.서이면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18]

광주군[19]에서는 오포면 추자리·고산리·문형리·양벌리 주민들이 3월 26일 밤부터 횃불 시위를 시작하여, 3월 28일에는 2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광주 군청 앞에 모여서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또한 3월 26일에는 동부면 풍산리와 중대면, 3월 27일에는 동부면과 서부면, 3월 27일에는 돌마면 주민들이 각각 자기 면의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밖에도 서부면, 구천면, 중부면, 낙생면, 대왕면, 언주면, 경안면, 실촌면, 퇴촌면 등 광주군 모든 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20]

용인군[21]에서는 3월 31일 원삼면 좌항리와 사암리 주민 2백 명이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3월 28일에는 수여면 주민 3백 명, 보곡면 주민 2백 명이 금량 장날을 기하여 각각 만세시위를 일으켰으며, 3월 29에는 수지면 고기리 주민 1백명과 내사면 남곡리 주민 1백 명이 각각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22]

진위군[23]에서는 3월 9일 현덕면에서 첫 봉화시위가 있었으며, 3월 10일에는 오성면과 청북면에서 산상시위가 있었다. 이어 3월 11일에는 병남면 주민들이 평택역 앞에서 만세시위를 가졌다. 이후 소강상태에 있다가 4월 1일 오성면 주민들이 경찰주재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했으며, 4월 3일 밤에는 봉오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서탄면의 약 4백명의 주민들도 4월 3일 면사무소 앞에 밀려가 만세시위를 하였으며, 평택읍에서는 장날인 4월

17) 3·1운동 당시의 시흥군은 현재 서울시의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와 경기도의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광명시 등으로 개편되었다.
18) 시흥지역의 3.1운동에 대해서는 이정선, 「시흥지방의 3.1운동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90년을 참조할 것.
19) 3·1운동 당시 광주군은 현재 광주시과 성남시로 분할되었다.
20) 광주지역 3.1운동에 대해서는 황민호, 「경기도 광주군지역의 3.1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를 참조할 것.
21) 3·1운동 당시 용인군은 현재 용인시로 승격되었다.
22) 이병헌, 앞의 책, 877-878쪽; 『매일신보』 1919년 4월 1일; 4월 3일자; 이상일, 「용인지역의 3.1운동」,『경기도지역 3.1운동의 특성과 성격』, 3.1운동 84주년 기념학술회의 자료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을 참조할 것.
23) 3·1운동 당시 진위군은 1938년 평택군으로 개칭되었다가 현재 평택시가 되었다.

11일 이도상의 주도하에 장꾼들이 대규모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일제는 4월 1일의 만세시위에 대해 '가장 광포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24]

안성군[25]에서는 3월 11일 읍내면과 양성면에서 첫 만세시위가 있었으나 한동안 진정되었다. 3월 28일 원곡면에서 만세시위가 재개되었고 4월 3일까지 이어졌다. 3월 30일에는 안성시장에서 약 2백 명의 장꾼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4월 1일에는 원곡면과 양성면 주민들이 대규모의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즉 4월 1일 원곡면 주민들은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한 다음, 그날 저녁 약 1천 명의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양성면으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양성면에서도 이날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에워싸고 만세시위를 전개하고 돌아 나오다가 원곡면 주민들의 행렬과 합세하여 약 2천 명의 주민들이 양성면으로 들어가서 양성주재소를 방화하고 우편소를 파괴했으며 일본인 상점들을 부셨다. 만세시위를 끝내고 돌아가던 양성면 주민들은 다시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호적원부 등 서류들을 꺼내어 불태워 버렸으며, 원곡면 주민들은 다시 원곡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면장을 포박하고 면사무소를 불태워 버렸다. 원곡 · 양성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격렬한 3·1운동의 하나였으며, 일제의 탄압도 가열하였다. 일죽면 주민들도 4월 1일 도록 개수 부역에 모인 1백 명의 주민들이 죽산 주재소까지 행진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죽면 주민들은 4월 2일 죽산시장에 진출하여 장꾼들과 함께 약 1천명의 민중들이 저녁 8시경까지 독립만세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26]

여주군[27]에서는 4월 1일 여주읍에서 약 2천 명의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북내면 장암리 주민들도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3일에는 북내면 주민 2백 명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여주읍을 향하여 시위행진을 전개했으며, 이날 밤 대신면 윤촌리 주민들도 횃불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개군면 곡수에서 3천여 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28]

이천군[29]에서는 3월 30일 마장면 오천리에서 1천여 명이 모여 첫 시위를 가졌으며, 3월 31일에도 마장면 주민 3백여 명이 면사무소 앞에 모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1일에는 신둔면 을 비롯하여 마장면.백사면.모가면.대월면.호법면.읍내면 등 7개 면이 연합하여 신수면 수광리에 모여 만세시위를 갖고 읍내로 진출하였다. 4월 2일에는 이천읍내에서 3백 명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전개했는데 일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 군중에게 발포하였다. 이외에도 청미면과 부발면에서도 봉화시위와 산발적인 만세시위가 있었다.[30]

이상의 경기남부지역의 3.1운동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24) 이병헌, 앞의 책, 879-881쪽; 『매일신보』1919년 3월 13일; 4월 3일; 4월 5일; 4월 14일자; 평택지역 3.1운동에 대해서는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의 재검토와 전개양상」, 『일제하 민족운동 시선의 확대 -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가의 삶 -』, 도서출판 아라, 2014를 참조할 것.
25) 3·1운동 당시 안성군은 현재 안성시가 되었다. 다만 청룡동 일부는 평택시에 통합되었다.
26) 이병헌, 앞의 책, 878-879쪽; 『매일신보』1919년 3월 15일; 4월 3일자; 안성지역 3·1운동에 대해서는 이정은, 「안성군 원곡·양성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을 참조할 것.
27) 3·1운동 당시 여주군은 현재 여주시로 되었다.
28) 이병헌, 앞의 책, 876쪽; 『매일신보』 1919년 4월 8일; 4월 14일자.
29) 3·1운동 당시 이천군은 현재 이천시로 되었다.
30) 이병헌, 앞의 책, 876-877쪽; 『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 4월 6일; 4월 10일자.

<표 1> 경기남부지역 3.1운동 일람표

지 역		일 시	전 개 상 황	현재 행정구역
수원군	수원읍	3.1	북문 안 용두각에서 수백 명 만세시위	수원시
		3.16	서장대와 연무대에서 수백 명 만세시위	
		3.16	오전 11시 북수리 천도교당에서 만세시위 계획	
		3.22	서호 부근에서 7백여 명 만세시위	
		3.25	청년 학생 노동자 등 20여 명 만세시위	
		3.26~31	상인들 철시	
		3.29	기생 시위/학생 기독교인 등 3백여 명 만세시위	
	성호면	3.25~26	학생 천도교인들이 금융조합과 일본인 가옥 파괴	오산시
		3.29	오산시장에서 8백여 명 만세시위	
		3.31	오산시장 고천 병점 군포장 등지에서 만세시위	
	송산면	3.26~27	홍면 등 계원 2백여 명 만세시위	화성시
		3.28	사강시장에서 7백여 명 만세시위, 野口 순사 처단	
	우정면 장안면	4.1	밤에 횃불시위	
		4.3	2천여 명 만세시위, 면사무소 주재소 방화, 川端 순사 처단	
	향남면	3.31	기독교인 천도교인 등 1천여 명 만세시위, 일본소학교 방화	
		4.1	일본인 가옥 방화, 저녁 횃불시위	
		4.5	발안장터에서 8백여 명 만세시위	
	의왕면	3.31	기독교인 천도교인 등 8백여 명 만세시위	의왕시
	반월면	4.1	반월장터에서 기독교인 천도교인 주민 등 6백여 명 만세시위	안산시
	안용면	3.29	마을 주민 등불 들고 만세시위	화성시
	태장면	3.29	면민 저녁 횃불시위	수원시
	동탄면	3.21	천도교인 기독교인 만세시위	화성시
	양감면	3.29	면민 수백 명, 진위군 청북면 율북리 주민과 만세시위	

지 역		일 시	전 개 상 황	현재 행정구역
용인군	수여면	3.28	유방리에서 주민 5백여 명 만세시위, 김량장리에서 3백여 명 만세시위	용인시
		3.30	김량장리에서 2천여 명 폭력시위	
	모현면	3.28	왕산리에서 4백여 명 평화적 시위	
		3.29	내곡리에서 1백여 명 만세시위	
	내사면	3.29	양지리에서 천주교인 등 1백여 명 평화적 시위	
	기흥면	3.30	면사무소 앞에서 3백여 명 시위	
	수지면	3.29	고기리에서 마을주민 1백여 명 면사무소로 몰려가 시위	
		3.30	삼 면민과 연합, 천도교인 등 1천5백여 명 시위	
	외사면	3.31	3천여 명 읍사무소와 헌병주재소 습격	
		4.2	주민 5백여 명 폭력시위	
		4.3	백암리에서 시위	
	이동면	3.31	송전리에서 주민 등 7백여 명 평화시위	
	고삼면	4.1	심은리에서 만세시위	
	원삼면	3.31	사암리에서 3백여 명, 송전리에서 3백여 명 시위	
		4.2	면민 5백여 명, 남곡리에서 1백여 명 시위	
	남사면	3.31	면사무소 습격	
		4.1	면민 2백여 명 면사무소 습격	
		4.2	창리에서 기독교인 천도교인 주민 등 4백여 명 격렬 시위	
	포곡면	3.28	삼계리에서 둔전리까지 릴레이식 시위, 2백여 명 참가	

지 역		일 시	전 개 상 황	현재 행정구역
진위군	병남면	3.11	평택역 사거리에서 만세시위	평택시
		4.1	읍내에서 3천여 명 만세시위, 평택 상가 철시	
	부용면	4.1	횃불시위 및 평택 시위에 참가	
	고덕면	4.1	율포리에서 주민 5백여 명 시위	
	오성면	3.10	평야 및 산간지대에서 만세시위	
		4.2	1천여 명 평화적 시위	
		4.3	학현리에서 봉화시위	
	청북면	3.10	산상 시위	
		4.1	면민 수십명이 만세시위	
	송탄면	4.2	독곡리에서 5백여 명 만세시위	
	송탄면	4.3	군내 수개 소에서 폭력시위	
	서탄면	4.10	금암리에서 1백여 명 주재소 습격, 사리 수월리에서도 만세시위	
	북면	3.21	천도교인 등 5백여 명 시위, 면사무소 습격	
		3.31	봉남리에서 4백여 명 시위, 면사무소 및 경찰서 포위	
		4.1	은산리에서 산상시위	
	현덕면	3.9	동민들 봉화시위	

지 역		일 시	전 개 상 황	현재 행정구역
안성군	읍내면	3.11	읍내에서 50여 명 시위	안성시
		3.30	동리. 서리. 장기리 주민 5,6백여 명 시위, 면사무소 습격, 군청으로 쇄도	
		3.31	3천여 명 군청과 면사무소 습격	
		4.1	읍내에서 5백여 명 시위	
	양성면	3.11	보통학교 학생 만세시위	
		4.1	덕봉리에서 2백여 명 주재소와 보통학교에서 만세시위, 산정리에서 횃불시위, 도곡리에서 산상시위, 추곡리 봉화시위, 이들 시위군중 면사무소.우체국.일본인 상점 습격 및 방화	
	원곡면	3.28	면사무소에서 만세시위	
		4.1	면민 1천여 명 면사무소에서 시위하고 양성면민과 합류 주재소 방화, 전선 절단, 일본인 가옥 방화, 면사무소 습격 방화	
	이죽면	4.1	보통학교 및 주민 수백명 주재소와 면사무소에서 시위	
		4.2	2천여 명 죽산시장.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보통학교 앞에서 시위	
		4.3	5백여 명 죽산에서 시위	
	일죽면	4.2	주천에서 2백여 명, 장암리에서 2백여 명 면사무소와 주재소 습격	
여주군	금사면	4.1	이포리에서 2천여 명 시위	여주시
		4.3	오금리.오학리와 천송리.당우리에서 만세시위, 각 2백여 명 참가	
	개군면	4.5	곡수에서 3천여 명 시위	
	대신면	4.3	주민 수십 명 횃불시위	
이천군	마장면	3.30	오천리에서 1천여 명 시위	이천시
		3.31	장암리. 오천리에서 천도교인 등 350여 명 시위, 주재소 습격	
		4.1	오천리에서 기독교인 등 350여 명 시위	
		4.1~2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 대월면. 호법면. 읍내면 등 연합으로 읍내에서 시위	
	청미면	4.4	1백여 명 백족산에서 봉화시위	
	부발면	4.3	만세시위	
		4.3	군내에서 산발 시위	

지 역		일 시	전 개 상 황	현재 행정구역
시흥군	북면	3.7	영등포리에서 보통학교 학생 시위, 동맹휴업	서울 영등포구
		3.23	당산리. 노량진리 등지에서 1천6백여 명 시위	
		3.29	구로리에서 1백여 명 시위	서울 구로구
		3.30	영등포리에서 2천여 명 시위	서울 영등포구
	신동면	3.25	잠실리에서 1백여 명 시위	서울 서초구
		3.26	양재리에서 2백여 명 시위, 원천사에서 3백여 명 시위	
	서이면	3.27	비산리에서 주민들 산상시위	안양시
	수암면	3.30	비석거리에서 2천여 명 시위	안산시
	남면	3.31	수원군 의왕면 주민들과 합세, 2천여 명 군포장에서 시위, 주재소 습격	군포시
	서면	3.27	이정석이 주재소 근처에서 시위주도	광명시
	서면	3.28	노온사리 주민 2백여 명, 주재소 습격	
		3.29	박달리에서 만세시위	안양시
	과천면	3.29	막계리. 주암리에서 시위	과천시
		3.30	하리에서 50여 명 횃불시위	
	군자면	3.29	장곡리 주민 시위	시흥시
		3.31	선부리에서 다수의 군중이 시위, 면사무소와 주재소 습격	안산시
		4.4	거모리. 죽율리에서 시위, 주재소 습격	시흥시

지 역		일 시	전 개 상 황	현재 행정구역
광주군	중대면	3.26	면민 수백명 시위, 면사무소.주재소 습격	서울 송파구
		3.27	면민 시위	
	동부면	3.26	풍산리 주민 20여 명 봉화시위	하남시
		3.27	면민 5백명 만세시위	
	서부면	3.27	면민 1천여 명 시위, 면사무소 습격	
	구천면	3.27	면민 1천여 명 시위, 헌병주재소 습격	서울 강동구
	중부면	3.27	면민 3백여 명 시위, 면장 폭행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돌마면	3.27~29	면민 1천여 명 평화적 시위, 봉화시위	성남시
	낙생면	3.27	돌마면과 연대하여 시위	
	대왕면	3.26	송파리 등 주민 1백여 명 시위, 면사무소 접수	서울 송파구
	언주면	3.27	내곡리 천도교 전교실에서 1백여 명 시위	서울 서초구
	오포면	3.28	면민 2천여 명 격렬하게 시위, 군청 습격	광주시
	경안면	3.28	오포면 주민과 연대하여 시위	
	실촌면	4.6	면민 4백여 명 시위	
	퇴촌면	3.30	광동리에서 시위	

<표 1>에서 본 경기남부지역의 3·1운동을 지역별 시위 회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경기남부지역 3·1운동 당시 시위 회수

지 역		시위 회수
수원군	13개면	25회
진위군	9개면	16회
여주군	3개면	4회
시흥군	8개면	17회
용인군	11개면	19회
안성군	5개면	12회
이천군	3개면	8회
광주군	13개면	17회

<표 2>에 의하면 수원군은 13개면에서 25회로 가장 많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이어 용인군이 11개면에서 22회를, 시흥군이 8개면에서 17회, 광주군은 8개면에서 17회, 진위군이 9개면에서 17회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안성군은 5개면에서 17회를, 이천군은 3개면에서 12회를, 여주군에서는 3개면에서 4회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전개한 만세시위는 모두 135회 정도에 달하였다.

3. 경기남부지역 3.1운동의 특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기남부지역의 3.1운동은 여느 지역보다도 격렬하였고, 그리고 적지 않은 135회 정도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기남부지역 3.1운동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남부지역 3·1운동은 시기적으로 3월 초순부터 4월까지 8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3.1운동은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첫 시위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경기남부지역에서 3.1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준비되거나 직접적으로 전개된 것은 3월 1일이었다. 당시 수원에서 첫 만세시위가 전개된 것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김세환 등 기독교 조직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었다. 기독교인이었던 김세환은 "본래 합병을 조선 사람이 싫어하였으나 대세에 어찌 하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도 독립운동에 진력을 하려 하였더니, 이번의 전쟁이 처음에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으나 미국이 전쟁에 참가한 뒤에는 군국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에 대한 평화주의의 전쟁이니까 강화회의에는 미국이

주장하는 민족자결을 적용하게 될 것에 따라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함이오"[31]라고 밝힌 바와 같이 3.1운동의 준비과정에 깊숙이 참여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2월 말경에는 수원상업강습소에서 사전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일 당일 수원 북문에 수백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사료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원의 3월 1일 만세시위를 논외로 하면 경기남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세시위를 전개한 곳은 시흥이었다. 3월 7일 오전 11시 보통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만세를 불렀다.[32] 이어 3월 9일 진위군 현덕면에서 산에 올라가 불을 놓고 만세를 불렀다.[33] 3월 10일에는 진위군 오성면과 청북면에서 각각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3월 11일에는 진위군 병남면과 안성군 읍내면, 양성면에서 각각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처럼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세시위를 전개한 곳은 수원군, 시흥군, 진위군, 안성군 등 4개 지역이다. 이후 3월 말경을 전후하여 80여회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으며, 4월에는 40여 회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4월의 만세시위는 주로 4월 초순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가장 늦은 만세시위는 4월 10일 진위군 서탄면 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등에서 전개되었다.[34]

한편 경기도에서 실제 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은 더 많았겠지만, 일제가 확인한 기록만도 283회에 달할 정도였다. 이러한 숫치만 가지고도 볼 때 경기도의 만세시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횟수였고, 참가 인원도 역시 가장 많아 16만 8천여 명에 달하였다. 특히 3월 말부터 4월 초순 사이는 만세운동의 절정기로 전체 회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253회에 이르고 있다. 이들 경기도의 만세시위 중 경기남부지역에서 전개한 회수는 대략 135회이며, 서울의 만세시위 회수를 제외한다면 가장 많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35] 경기남부지역 역시 3월

31) 「김세환 신문조서」
32) 『매일신보』 1919년 3월 10일자.
33) 이병헌, 앞의 책, 879-880쪽. 이 횃불시위 역시 이병헌의 기록에서만 보이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4) 『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자 및 이병헌, 앞의 책, 881쪽.
35) 각 도별 3·1운동 당시 만세시위 회수는 다음과 같다.

각도별 만세운동 집회수 및 참가자 수

도 별	집회 지역(부군)	집회회수	참가자수(명)
경기도	22	288	470,000
강원도	20	74	25,000
충청북도	9	56	28,000
충청남도	13	75	50,000
경상북도	20	62	26.000
경상남도	21	121	100,000
전라북도	14	39	10,000
전라남도	18	44	수만
황해도	17	137	70,000
평안북도	18	114	150,000
평안남도	15	85	60,000
함경북도	10	44	20,000
함경남도	15	75	25,000

중순 이후부터 4월 초순까지 약 한 달간 가장 격렬하게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둘째로는 경기남부지역 만세시위는 청년 및 학생, 천도교와 기독교인 등 종교인, 주민과 노동자 등 다양한 주도계층에 의해 전개되었다. 우선 경기남부지역의 3.1운동은 민족대표 및 기독교와 천도교의 종교적 조직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민족대표와의 관련되어 만세운동이 전개된 곳은 수원이었다. 민족대표 48인[36]의 한 사람이었던 김세환은 민족대표 이갑성과 함께 만세운동 만세운동의 준비를 논의한 후 수원과 이천군 지역을 돌며 독립청원서에 서명 날인할 동지를 모집한 바 있었다. 그리고 종교적 조직을 기반으로 전개된 만세시위는 수원군, 광주군, 진위군 등이었다. 수원군의 경우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만세운동 이전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청원서 서명날인을 주도하는가 하면 3월 1일 횃불시위에 김세환을 비롯하여 김노적, 박선태, 이선경 등 60여 명이 일경에 연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3월 16일 전개된 수원장날 만세시위 역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일제가 당일 만세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천도교당에 난입하여 천도교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 폭행하였으며, 김세환이 학감으로 있던 기독교계 학교인 삼일여학교도 습격하여 사무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37]

이후 수원군 장안면과 우정면, 향남면 만세시위에서도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의 적극적인 주도와 참여로 전개되었다. 광주군의 경우 돌마면과 언주면의 만세시위는 천도교인 한순회(韓順會)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밖에도 용인군 수지면과 내사면.남사면, 진위군 북면, 이천군 마장면, 양평군 용두리 등지에서도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등 종교인이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진위군 현덕면에서는 이민도[38] 등 천도교인들이 사전 예비검속을 당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진위군 만세시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종교인 외에도 청년 학생의 주도로 전개된 만세시위도 적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경기남부에서 처음으로 전개된 만세시위는 '보통학교 학생'들에 의해 전개되었다.[39] 청년 학생들은 3.1운동 초기 단계에서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독립선언서와 각종 유인물의 배포 등을 담당하였으

36) 일제강점기 민족대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인식이 있었다. 하나는 '33인'이고 다른 하나는 '48인'이었다. 독립선언서에는 비곡 33명이 서명을 하였지만 대체로 48일까지 민족대표로 인식하였다. 『동아일보』는 3·1운동 민족대표와 관련하여 첫 기사로 1920년 3월 19일자에 「금일 공판 시작되는 朝鮮民族代表 사십팔인의 肖像: 孫秉熙, 崔麟, 權東鎭, 吳世昌, 林禮煥, 權秉悳, 李鍾一, 羅仁協, 洪基兆, 金完圭, 羅龍煥, 李鍾勳, 洪秉箕, 朴準承, 李寅煥, 朴熙道, 崔聖模, 申洪植, 梁甸伯, 李明龍, 吉善宙, 李甲成, 金昌俊, 李弼柱, 吳華英, 朴東完, 鄭春洙, 申錫九, 韓龍雲, 白相奎, 安世桓, 林圭, 金智煥, 崔南善, 咸台永, 宋鎭禹, 鄭魯湜, 玄相允, 李景燮, 韓秉益, 金弘奎, 金道泰, 朴寅浩, 盧憲容, 金世煥, 康基德, 金元璧, 劉如大」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재판과정의 기사를 게재하면서도 '민족댚료 48인'으로 표기하였다.(「展開된 獨立運動의 第一幕; 朝鮮民族代表 四十七人의 公判」, 『1920년 7월 14일』 등)

37) 이병헌, 앞의 책, 868쪽.

38) 이민도는 이병헌의 아버지로, 이병헌으로부터 3·1운동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들었을 추정되며, 3월 9일 현덕면 일대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본다.

39) 「보통학교 휴교」, 『매일신보』 1919년 3월 10일자. "7일 오전 11시경에 보통학교 생도 전부가 동맹휴교를 하고 만세를 부른 후에 헤어졌으므로, 주모자 5명을 인치하여 엄중히 설유를 하여 깊이 전비를 뉘우치고 이튿날부터 출교하겠다고 맹세하였다더라."

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에서도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 배포하면서 직접 만세 시위 군중을 이끌기도 하였다. 조선약학교 학생이었던 이인영(李仁永)은 안성군 이죽면 친척집에 내려와 독립선언의 취지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주민들을 선도하여 죽산장터 시위를 지휘하였다.[40]

이외에도 경기남부지역 3.1운동의 주도계층으로 유교적 소양을 지닌 향촌사회의 지식인을 비롯하여 이장(里長) 또는 구장(區長)의 역할 역시 적지 않았다. 대한제국에서 관직을 역임한 후 향리에 내려와 서당을 설립한 수원군 팔탄면의 이정근(李正根), 향리에서 서당을 세워 항일의식을 고취하던 중 만세운동을 주도한 포천군 신북면의 이학려(李學汝)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장과 구장의 경우 주민들의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진위군 서탄면 면장 윤기선은 주민들을 불러모아 만세시위를 주도한 바 있다. 이외 광주군 동부면 교산리 시위를 주도한 이대헌(李大憲)과 망월리 시위를 주도한 김교영(金敎永),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시위를 주도한 홍명선(洪命善)과 장안면.우정면 만세시위를 주도한 차병한(車炳漢)과 백낙렬(白樂烈),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의 이덕균(李德均), 안성군 일죽면 주천리 시위를 주도한 곽대용(郭大容) 등이 이장이나 구장들이었다.

셋째로 경기남부의 만세시위는 초기에는 평화적이었으나 3월 중순 이후 과격하고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3월 초순 만세시위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였으나 3월 중순 농촌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점차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점은 농촌이 일제 지배통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지세와 호세를 비롯하여 지세부가세, 시장세, 도장세(屠場稅), 연초세, 주세, 면비, 학교조합비 등 각종 조합비 등 주민들에게 부과되었던 조세의 부담과 주재소 설치로 인한 헌병과 경찰의 주민 억압 등으로 주민들을 탄압하여 지배통치에 순응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통치는 주민들의 시위에 적극 참여케 하였고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폭력을 수반하는 시위로 바뀌었다.

3월 중순 이후 전개된 만세시위는 대부분이 농촌의 식민지배통치 기관인 면사무소나 경찰서, 주재소, 우편소, 금융조합, 소학교 등 관공서를 시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관공서를 습격하여 문서나 사무기구를 방화하였으며, 심지어 경찰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수원군 성호면과 우정면, 장안면, 향남면 만세시위를 비롯하여 용인군 수지면과 외사면, 평택군 서탄면, 안성군 읍내면과 양성면, 원곡면, 이죽면, 일죽면, 이천군 마장면, 시흥군 남면, 서면, 군자면, 광주군 중대면, 서부면, 구천면, 대왕면, 오포면 등지의 만세시위가 대표적이다.

특히 수원군 장안면 화수리주재소의 가와바다(川端) 순사는 위생검사를 하면서 조선인의 빰

40)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3권(3·1운동Ⅲ),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4&itemId=hd&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3&levelId=hd_013r_0030_1420)

을 때리는 등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 등에 대한 가혹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으며, 결국 만세시위 과정에서 살해되었으며, 송산면 만세시위에서는 노구치(野口) 순사가 시위 군중에 살해되었다.

넷째로 경기남부의 경우 만세시위에 대한 일본 측의 탄압과 보복 등의 대응이 심하였는 점이다. 3.1운동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처음부터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3월 중순이 이후 만세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폭력화되자 군대를 동원한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었다.[41]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제는 만세시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안성군 양성면과 원곡면 만세시위에서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서류와 집기를 부수고 이를 방화하였고, 수원군 송산면, 사강면과 우정면, 장안면 만세시위에서 일본인 순사가 살해되었다. 일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을 투입하여 강경하게 진압하였다.[42] 이 과정에서 안성군에서는 최은식 등 126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며,[43] 수원군에서는 김현묵 등 52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44] 30여 명이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학살되었다.[45] 이밖에도 이들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방화되어 생활의 터전을 잃기도 하였다.

한편 진위군에서 만세시위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탄압을 받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월 초에는 주요 인물에 대한 예비검속이 강화되었으며, 4월 1일 평택역 만세시위에서는 일경의 발포로 4명이 사망하였으며,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46] 4월 9일 8시경 고덕면 만세시위의 주모자를 검거하려고 하던 중 시위를 하며 저항하자 일경과 자위단이 발포하여 6~7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47] 이로 인해 진위군의 3·1운동은 경기남부의 수원군, 안성군과 함께 '가장 광포한 시위'[48]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한 신문에서는 해방 후 한 언론에 의하면 3·1운동에 참가한 평택 주민은

41) 일제가 만세운동에 대해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만세시위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폭력화됨에 따라 4월 10일 6개 연대 규모의 군대를 조선으로 파견키로 하였다. 이어 오사카(大阪)으로부터 4백여 명의 군인을 증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4월 11일 증파된 부대 중 일부가 부산에 입항하였다. 또한 3·1운동에 대한 진압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흉기를 가졌다던지 관청을 파괴하며 방화하는 자는 엄혹한 처치를 하며, 둘째 다수한 군중이 집단하여 소요를 일으키며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위력으로 진압하며, 셋째 소동이 일어난 지방이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방에 군대를 파송하여 지방의 유력자를 모아 간절히 설유 또는 훈계하며 만일 불온한 행동을 하는 자, 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처치를 할 터이라."(『매일신보』 1919년 4월 9일자)
42) 조선주차헌병사령부는 수원과 안성지역에 대한 보복으로 검거반을 4개로 조직하여 헌병장교 5명과 경부 등을 지휘관으로 하여 4월 2일부터 14일까지 64개 마을을 수색케 하였다. 이 과정에서 19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800명을 검거하였다. 그리고 276호의 가옥을 불살랐다.(전보 1919년 4월 21일,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其 1), 국회도서관, 1977, 143쪽)
43) 『매일신보』 1919년 8월 10일자.
44) 『매일신보』 1919년 8월 8일자. 52명이 경성지방법원 예심과정에서 25명은 방면되었고, 27명은 고등법원으로 넘겨졌다.
45) 이에 대해서는 성주현, 「수원지역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의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을 참조할 것.
46) 『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자.
47) 『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자.
48) 「조선3·1독립소요사건」, 『독립운동사자료집』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928-929쪽.

모두 22회에 걸쳐 6,000여 명이었으며, 사망이 64명, 부상자가 174명, 일제 경찰에 채포된 주민이 257명에 이른다[49]고 한 바 있다.

이처럼 경기남부지역의 3·1운동은 이른바 '3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수원군(현 화성시) 우정면과 장안면, 그리고 송산면의 만세시위, 안성군의 원곡면과 양성면의 만세시위를 포함하여 가장 광포한 시위였던 진위군(편 평택시) 평택역 만세시위 등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한 3·1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매일신보』
김진봉, 2000,『3.1운동』,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신용하, 1989, 『3.1독립운동』, 독립기념관
윤병석, 1975,『3.1운동사』, 정음사
경기도, 1995,『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이병헌, 1959,『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이용락, 1969,『3.1운동실록』, 3.1동지회
홍석창, 1981,『수원지방 3.1운동사』, 왕도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 1966,『한국독립운동사』2
국사편찬위원회, 1967,『한국독립운동사』3
국회도서관, 1977,『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其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독립운동사』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독립운동사자료집』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독립운동사자료집』6
강덕상, 1967,『현대사자료』26(3.1운동편), みすず書房
김정명, 1967,『조선독립운동』1, 原書房
박은식, 1946,『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신문사출판국
김선진, 1983,『일제의 학살만해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동아일보사, 1969,『3.1운동50주년기념논집』
안성문화원, 2002,『3.1운동과 안성의 4월 독립항쟁』
이병헌, 1946,「수원사건」,『신천지』1-2
조병창, 1971,「수원지방을 중심한 3.1운동 소고」,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은, 1987,「안성군 원곡.양성의 3.1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1, 독립기념관
이인수, 1987,「이천의 3.독립운동」,『이천의 의병활동과 3.1운동』, 이천문화원
이지원, 1989,「경기도 지방의 3.운동」,『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이정은, 1995,「화성군 장안면.우정면 3.1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9, 독립기념관
조성운, 2001,「일제하 수원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경기사론』4.5, 경기대학교사학회

49)『조선일보』1959년 3월 1일자.

김창수, 2003, 「3.1독립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수원문화원
김권정, 2003, 「수원지방 기독교인들의 3.1운동의 참여와 동향」,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수원문화원
성주현, 2003, 「수원지역 3.1운동과 천도교인의 역할」,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수원문화원
박 환, 2003, 「화성 화수리 3.1항쟁의 역사적 성격」, 『경기도지역 3.1운동의 특성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학회.수원대학교 동고학연구소
이상일, 2003, 「용인지역의 3.1운동」, 『경기도지역 3.1운동의 특성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학회.수원대학교 동고학연구소
박수현, 2003, 「개성지역의 3.1운동」, 『경기도지역 3.1운동의 특성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학회.수원대학교 동고학연구소
김권정, 2004, 「김세환과 기독교민족운동」, 『경기도 지역의 3.1운동과 김세환』, 수원문화원
박 환, 2004, 「경기도지역 3.1운동의 연구동향과 전망」, 『경기도 지역의 3.1운동과 김세환』, 수원문화원
조성운, 2005, 「수원지역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응」,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일제의 대응』, 수원문화원
이동근, 2003, 「수원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우정·장안면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7, 경기사학회
이동근, 2004, 「1910년대 水原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3·1운동의 전개과정」, 『수원문화사연구』 6, 수원문화사연구회

기 조 발 제 ②

평택 3·1운동의 성격과 특징

기조발제자(공동연구) / 김 해 규
평택지역문화연구소 소장
기조발제자(공동연구) / 장 연 환
효명고등학교 교사

1.머리말

1919년 3월 1일 고종의 국상일을 기해 시작된 3·1운동은 한국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이며 민중운동이었다. 3·1운동에서 우리민족은 종교적, 계급적, 계층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일제의 식민지배에 반대하고 민족해방을 목적으로 투쟁했다.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족의 독립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일제의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었고, 국내에서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만주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이 전개되었고, 국내와 만주, 연해주,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택지역의 3·1운동은 3월 9일부터 시작되어 4월 1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평택지역에서는 진위군 북면 봉남리와 병남면 평택리를 비롯 전 지역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약6,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했고[50], 이 과정에서 257명이 체포되었으며 인명피해만도 사망64명, 부상 174명이 발생했다.

그동안 평택시의 3·1운동은 이웃한 안성시나 화성시, 천안시에 비해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만 1997년 평택문화원에서 『평택 3·1독립운동사』와 『평택항일독립운동사』가 발간되어 개략적인 정리를 했고, 지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몇몇 논문[51]이 발표되어 연구의 진전을 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1차 사료의 발굴과 활용이 부족했고 사건의 나열이나 추론이 많았으며, 참여계층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 하지만 이것은 관련 사료가 지나치게 적고 구술 사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인은 평택지역의 3·1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격렬하게 발생하게 된 이유로 천도교의 영향과 철도교통의 발달을 꼽는다. 또 참여계층도 초기에는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인과 일부 농촌지식인들이 앞장섰지만 3월 말 만세운동이 확산되고 격화되면서부터는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던 일반 민중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역적으로는 최초 봉기지역인 현덕면 옥녀봉과 계두봉, 진위면 봉남리와 평택역전이 중심이 되었으며, 각 지역의 거점지역도 봉기의 중심이 되었다. 이밖에 안성시 원곡면과 인접한 도일동이나 칠원동, 죽백동과 월곡동 주민들도 원곡·양성의 3·1운동에 참여하고 있다[52]. 이 같은 현상은 평택지역이 갖는 지리적 환경, 근대 이후 중심지의 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본 발표문에서는 평택지역 3·1운동의 배경을 살펴보고, 중심 거점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며, 제한적이나마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계층을 분석해볼 생각이다.

50) 박철하,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안재홍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구』, 2014, 131쪽
51) 김방, 「평택지방의 3·1독립만세운동」,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 평택문화원·(사)민세 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2009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 『소사벌』 22호, 평택문화원, 2009; 박철하,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안재홍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구』, 2014;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의 재검토와 전개양상」, 『안재홍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구』, 2014

2.경부선 평택역 설치와 중심지 이동

평택시는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구릉이 낮고 평야가 발달하였으며, 서쪽에는 아산만이 있고, 내륙으로는 안성천, 진위천을 중심으로 수 십 개의 하천이 발달하였다. 생산 활동은 주로 논농사 위주였으며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밭농사도 발달했고, 서평택의 해안가와 안성천 하류에서는 어업과 수산업, 염업이 발달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바다가 가깝고 저습지가 많아서 간척지의 포락(浦落)이 자주 발생했으며, 수해(水害)와 염해(鹽害), 한해(旱害)의 피해가 잦아 농업생산력이 매우 낮았다.

평택지역의 변화는 근대이후 근대적 교통망과 행정구역개편이 가져왔다. 갑오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평택지역은 안성천을 경계로 경기도와 충청도로 나눠졌고 여러 고을의 월경지 또는 두입지가 많았다. 그러다가 갑오개혁과 1906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안성천 이북과 진위천 동쪽은 진위군, 진위천 서쪽은 수원군, 안성천 남쪽에는 평택군으로 통폐합되었다. 세 지역이 오늘날처럼 공간적으로 통합한 것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이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세 지역은 통합 진위군이 되면서 정치, 행정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

52) 죽백동 월곡동 주민들 가운데 원곡·양성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른 수형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번호	이름	거주지	비고
1	김시연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족장
2	김영서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국장
3	김영희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국장
4	김창섭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족장
5	박옥동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족장
6	박용업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족장
7	김월순	월곡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족장
8	빅무신	월곡리-현 평택시 죽백동	
9	서병돈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10	서완득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족장
11	이규창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족장
12	이상신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국장
13	이양섭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독립장
14	이영우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족장
15	정영실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16	최항진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국장
17	홍순태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18	정호근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19	박정식	월곡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족장
20	이종만	월곡리-현 평택시 죽백동	애족장
21	이유석	현덕면 방축리	애족장
22	이유원	평택리-현 평택시 원평동	애족장

※참고 : 안성독립운동인물자료관 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

근대 이후 평택지역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는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경부선 철도역 설치를 들 수 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53]이 평택지역을 공간적으로 통합했다면, 경부선 철도역 설치는 평택지역의 중심을 기존의 진위면 봉남리와 팽성읍 객사리에서 평택역전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부선은 1905년 1월 1일 개통되었다. 철도가 개통되면서 평택지역에는 평택역, 서정리역, 진위역[54]이 설치되었다. 1915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발행한 『조선철도여행안내』에 따르면 '평택역 설치는 진위군청이 있고 경기도와 충청도가 만나는 지점이며, 평야가 넓어 농산물이 풍부할 뿐 아니라 아산만과 연결되어 있어 수로교통의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안성과 4리 17정, 둔포와 2리 7정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상업적으로 유리하며, 대로가 지나가고 교통이 편리한 점, 군청[55]과 경찰서[56], 우편소, 학교조합, 조선상업은행지점[57], 소학교 등이 소재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경부선 평택역전에 근대도시가 발달하면서 혼마찌와 같은 일본인 거리와 일본인 조계지도 형성되었다. 1924년 통계[58]에 따르면 진위군 전체 일본인 이주자들은 총 656명으로 이 가운데 412명이 평택역전 병남면 평택리에 거주했다. 일본인 회사는 1906년에 설립된 대한무역상사(大韓貿易商社)[59]를 시작으로 진위흥농, 홍익식산(주), 수륙물산 등이 있었다. 이들은 평택역을 중심으로 무역업, 창고업, 정미업, 위탁판매업, 농업, 개간사업, 광업을 하였다.

평택역전에 근대도시가 형성되고 평택평야의 미곡과 경기만 일대의 어염이 안성천 수로를 통해 평택역전으로 집중되면서 일본인 거주 지역(혼마찌) 서쪽으로 평택장이 개장했다. 평택장은 1910년대 초반에는 시장형성이 미미했지만 평택역과 편리한 교통망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여 1930년대 후반에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안성장과 수원장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장시로 거듭났다.[60] 1910년대 후반 평택역전의 주요 거래품목은 미곡(米穀), 어염(漁鹽), 농우(農牛)였다. 이 중에서도 평택장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미곡(米穀)이었다. 평택평야의 미곡이 평택역전을 중심으로 집산되면서 평택장 일대에는 미곡상들이 출현했다. 기록에 따르면 1914년경 평

53) 1914년 행정구역개편과 1917년 조선면제의 실시로 3·1운동 시기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시)은 군(郡)-면(面)-리(里) 체제로 편재되었으며, 군수 아래에 면장 11명, 면서기 49명, 구장(이장) 128명이 있었다.
54)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여행안내』, 1915, 40~41쪽
55) 평택군청 이전노력은 1913년 3월 평택역전 거주 일본인 이시카와 등에 의해 추진되었고 1914년에는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평택경찰서는 1905년 수원헌병대 평택분견대가 1919년 경찰행정의 독립에 따라 진위군 평택경찰서로 발전했고 진위군청과는 건물이 잇대어 있었다.
56) 1917년 현재 진위경찰서는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에 소재했으며 북면 하북리, 오성면 안중리 등 4곳에 순사주재소가 있었다.
57)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年度 第194表. 조선상업은행 평택지점은 1907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평택역전에 설치되었으며 1912년 2월 1일 조선상업은행과 병합하였다. 또 1914년에는 평택금융조합이 설립되었고, 같은 해 미상조합(米商組合)도 창립되었다.
58) 『동아일보』1924년 7월 9일자. 진위군 면 별 호구 수
59) 『대한매일신보』1906년 11월 22일자
60) 1938년 평택장과 주변지역 장시의 거래량

택역전에는 일본인 미곡상 4명에 조선인 15명이 존재했고, 1918년에는 진위면 전체의 곡물영업자가 4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다[61].

이 같은 변화로 평택지역은 종래 진위면 봉남리와 팽성읍 객사리의 구도심이 크게 쇠퇴하고 평택역전이 명실상부 평택지역을 대표하는 중심으로 거듭났다. 다음은 1910년대 평택역전의 인구구성이다.

<1910년대 후반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의 인구>[62]

구분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합 계
1916년	1,363명	411명	43명	1,817명
1917년	1,580명	442명	55명	2,077명
1918년	1,997명	511명	47명	2,535명
1919년	2,252명	454명	38명	2,744명

※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8.

위 표를 보면 1916년에서 1919년까지 일본인과 중국인의 인구증가는 비슷하지만 조선인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인 이민자들은 평택역전에서 상업이 종사하거나 평택평야의 미간지를 대규모로 개간한 지주들이 많았던 반면, 조선인은 평택장을 중심으로 하는 미곡상 등 상인층이었다. 이들은 일정한 근대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철도를 통한 정보습득도 농촌지역에 비해 빨랐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대교육의 발달과 천도교의 확산

평택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근대교육과 천도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근대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95년 교육입국조서와 소학교령이 반포되면서부터다. 이에

지 역	장 시	거래액(원)
평택군	평택장(5일, 10일)	746,620
	서정리장(1일, 6일)	118,000
	안중장(2일, 7일)	115,420
아산군	둔포장(2일, 7일)	25,500
안성군	읍내장(2일, 7일)	1,092,000

61) 허영란, 「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유통구조의 재편」, 『역사문제연구』제2호, 1997
62) 박철하,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135쪽에서 재인용

따라 평택지역에서도 진위군수 등 관료층과 지역유지층을 중심으로 소학교설립이 준비되었다. 1898년에는 진위면에 진위군수 김영진의 주도로 사립 진문소학교가 설립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1899년에는 진위면 봉남리에 진위공립소학교가 개교했다[63]. 1905년까지 전국적으로 설립된 관립, 공립소학교가 도합 60개에 불과했으므로 진위공립소학교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개교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진위공립소학교는 독립된 학교건물을 갖추지도 못했고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나 학생모집이 잘 되지 않아서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다.

근대교육운동은 1905년 을사늑약에 따른 구국운동의 확산과 1906년의 '보통학교령', 고종의 '흥학조칙'의 영향으로 활발해졌다. 학교설립은 대체로 전직관료나 지역 유지층이 적극 나섰다. 학생들은 양반 자제들도 있었지만 평민층의 자제들이 다수였다. 1905년에서 1919년 사이 평택지역의 공립 및 사립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05~1920년 사이 진위군의 공립 및 사립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자	설립연도	위치	학생 수	성격
진위공립소학교	김영진 외	1899년			공립
평택공립소학교	강난수 외	1913년	팽성읍 객사리→ 평택리		사립→공립
진문소학교	권중석, 고재항	1907년	진위면 가곡2리	50~60명	사립
진위소학교	이범철	1898년			사립
진흥의숙	이범창	1906년	고덕면 율포1리	40~50명	사립
수성학교	서상천	1907년	청북읍 백봉리	53명	사립
동명의숙	김춘희 외	1906년	합정동 조개터	80여명	사립
성공회신명강습소	김인순	1906년	팽성읍 객사리 성공회 성요한교회		사립
구씨학원	구택희	1915년	진위면 봉남리		사립
숙성리개량서당		1914년	오성면 숙성1리		사립
진동학교		1910년	중앙동 서두물		사립
노동야학	유준흥	1909년		50여명	사립
사범양성학교	김영진	1908년			
○○사숙	이병철	1909년	서탄면 마두리	수십 명	사립

※ 참고 : 박철하,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수정인용,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참고

63) 대한제국 『관보』, 1899. 관보에는 교원으로 이교홍을 파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들 학교들은 공립의 경우 일제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반면, 사립의 경우에는 1908년 '사립학교령' 이후 점차 폐교되는 수순을 밟았고, 강난수씨가 운영했던 팽성읍의 '남산리학교(추정)'처럼 일부만 '모범학교'로 지정되어 공립학교로 전환되었다. 1917년 일제의 기록에는 진위군(현 평택시) 전체에 사립학교는 1개뿐이고 서당은 115개이며, 학생 수는 8,503명이라고 밝혔다[64].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당이다. 1910년대 서당들은 한문서당과 함께 한문과 근대학문을 함께 가르치는 개량서당도 많았다. 일부 서당들은 민족의식도 높아 오성면 숙성1리의 개량서당의 학생들은 3·1운동 당시 오성면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근대학교와 서당의 존재는 농촌지식인층의 증가를 가져왔다. 3·1운동 때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도 농촌지식인이 많았으며, 또 학교를 매개로 연결된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교육과 함께 평택지역 3·1운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천도교의 확산을 꼽을 수 있다. 천도교는 동학농민전쟁 이후 급격히 쇠퇴했지만 평택지역은 이민도 등의 전교활동으로 신자수가 증가하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있었다. 현덕면 권관리에 거주했던 이민도는 서평택지역의 명문가였던 함평 이씨 가문의 종손으로 1879년 동학에 입도(入道)했다. 1893년에는 '척왜양창의 운동'에 참여했으며 1906년 수원교구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13년에는 천도교 수원교구장으로 활동했고 평택지역의 접주로도 일했다. 1910년 전후 평택지역에는 이민도 외에도 이병헌(이민도의 아들), 김용희, 김영식 같은 인물들이 천도교를 믿었으며, 장교진, 정동주, 김지현, 이규성, 이인수, 고문재, 박인훈과 같은 인물들도 확인된다.

1906년 천도교 중앙총부와 지방교구가 설치되고 근대조직을 갖출 당시 수원군에 속했던 서평택지역은 수원교구에 편입되었으며 고덕면과 현덕면에는 수원교구 소속의 면전교실이 설치되었다. 진위천 동쪽의 진위군 지역에는 진위면 야막리에 진위교구가 설치되었다. 1910년대 고덕면전교실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은 박원병(朴元秉), 원세봉(元世鳳), 진종만(陳鍾萬), 김영학(金永學), 김연건(金演健), 김유경(金有卿), 임승팔(林承八) 등이 있었으며, 현덕면전교실은 이민도(李敏道), 손수한(孫壽漢), 오기영(吳起泳), 이유상(李儒像), 박이엽(朴利燁), 장용준(張容俊), 최정래(崔貞來), 임경한(林景漢), 최이래(崔利來), 김화경(金化景), 이병헌(李炳憲), 최종환(崔宗煥), 이인수(李麟秀) 등이 전교사와 종리사로 활동했다. 진위교구에는 초대교구장으로 판단되는 박창훈(朴昌勳)을 비롯해서 장건후(張建厚), 이규성(李圭成), 김지현(金芝鉉), 장태진(張台鎭), 노병규(盧秉奎) 등이 활동했다.[65]

현덕면에서 천도교인들이 많았던 마을로는 권관리와 기산리, 장수리[66]를 들 수 있다. 현덕

64)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1개만 남은 사립학교의 명칭은 알 수가 없다. 다만 1916년 경 평택시 합정동의 동명의숙이 남아 있었다는 증언이 있고, 1915년 전 영의정 심순택의 부인 구택희씨가 진위면 봉남리에 '구씨학원(금릉학원)'을 설립했다는 기록이 있어 '구씨학원'이나 '동명의숙'이 아닐까 추정된다.

65) 성주현, 「평택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소사벌』제22호, 평택문화원, 2009, 100~107쪽

면에서 이민도를 비롯해서 이병헌, 최이래, 이인수 등은 권관1리에 살았으며, 오기영, 김화경 등은 성씨로 볼 때 장수리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67]. 고덕면에는 문곡리, 두릉리 일대에 천도교인들이 많았다. 특히 문곡리에는 천도교인들이 다수 거주하여[68] 고덕면전교실은 이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위교구가 있었던 진위면 야막리는 당시 밀양 박씨와 장씨가 다수였고 주민들 대부분이 천도교인이었다. 주민 박종구(남, 1904년생)[69]씨는 조부 박창순 때부터 천도교를 믿었다고 했으며 야막리의 진위교구당에서 있었던 월례집회에는 서탄면 회화리, 화성시 양감면 교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회고했다. 이 같은 천도교의 확산과 조직적 체계는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일대에서 최초의 봉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70]

4. 3·1운동의 지역 별 추이(推移)와 참여계층

평택지역의 3·1운동은 시기적으로는 이웃한 안성시나 화성시, 천안시보다 이른 3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예컨대 수원시는 3월 1일 수원화성의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앞에서 김세환 등 수 백 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고, 안성시는 3월 11일 안성시 양성면의 양성공립보통학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용인시는 3월 21일 원삼면의 좌찬고개에서, 화성시는 3월 26일 송산면에서, 천안시는 3월 14일 목천면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최초의 봉기지역인 현덕면 권관리와 기산리를 비롯해서 진위면(북면) 봉남리, 병남면(구 평택시) 평택리가 중심이 되었고, 면(面) 단위에서는 각 지역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종교적으로는 천도교가 앞장섰으며 계층별로는 농민층과 상인계층, 학생계층이 참여가 두드러졌다.

평택지역이 주변지역보다 이른 시기에 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은 철도교통의 발달과 천도교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살펴봤듯이 1919년 당시 평택역전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평택역이 설치되면서 일본인 이민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근대도시가 발달했으며, 주요관공서와 근대시설, 시장이 형성되어 일제 식민통치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이 같은 교통의 이점과 근대도시의 발달로 일반 농촌 지역보다 일찍 서울의 움직임과 독립만세운동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향후 평택남부지역의 만세운동이 평택역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

66) 장수리의 경우 오재환(남, 1928년생, 경기도 의왕시 거주)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천도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재환씨는 할머님도 생전에 천도교인이었으며 장수리에 거주했던 큰아버지 오상근도 천도교인으로 권관리의 이민도, 이병헌씨와 교류가 많았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12일 전화인터뷰.

67) 권관1리 상하동은 전주 이씨와 수성 최씨가 대성(大姓)이며 함평 이씨는 이민도씨를 비롯해서 2, 3호가 거주했다고 한다. 장수리는 해주 오씨, 경주 김씨, 김해 김씨가 대성(大姓)이며, 최초의 3·1운동이 전개되었던 옥녀봉이 있는 기산2리도 곡부 공씨들이 다수다. 이처럼 동학교도들의 거주지역도 성씨를 통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68) 고덕면 문곡리 김하섭(남, 1937년생, 2003년 인터뷰)씨는 황조곡 마을에 임씨 성을 가진 사람이 천도교를 믿었고 집회에도 열심이었는데 아들들이 한국전쟁 당시 좌익에 연루되어 죽거나 마을을 떠났다고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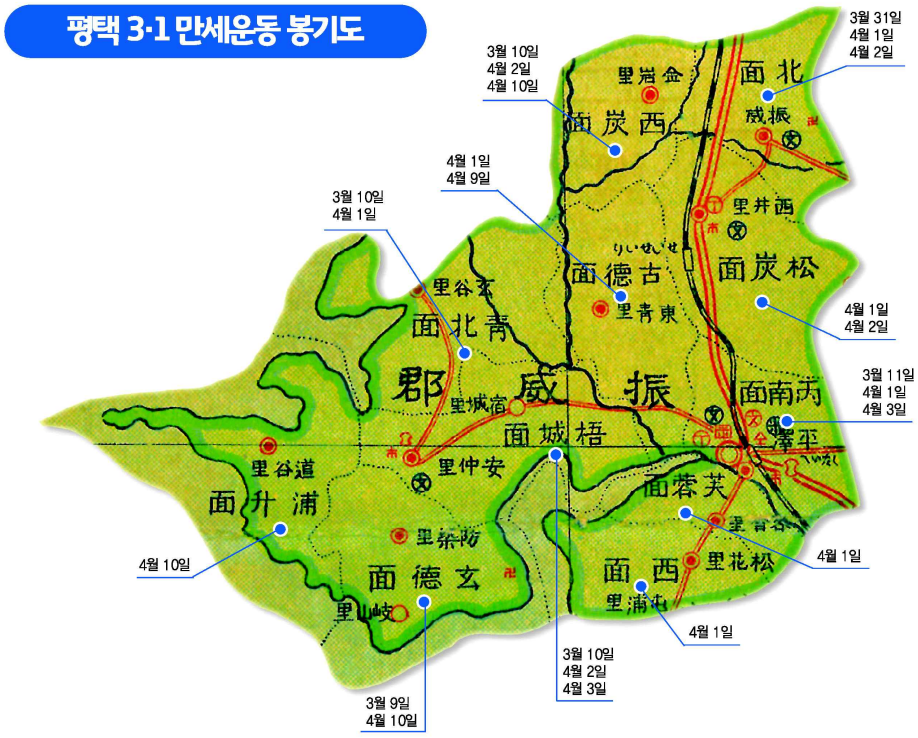
69) 2005년 8월 9일 진위면 야막리 박종구씨 자택에서 인터뷰

70) 성주현, 「3·1운동과 평택지역의 움직임」, 『근현대 평택을 걷다』, 평택문화원, 2015

다른 하나는 천도교와의 관련성이다. 성주현은 일찍이 평택지역은 1920년대 천도교 구파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중심이었다고 분석하면서, 이들은 3·1운동 당시에도 긴밀한 인적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71]. 이 같은 인적 네트워크는 천도교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현덕면 권관리와 기산리, 진위교구가 있었던 진위면 야막리와 천도교인들이 다수였던 봉남리에서 가장 먼저, 활발하게 만세운동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일반인들보다 가혹한 탄압과 박해[72]를 받는 원인이 되었다.

봉남리가 평택 북부지역 만세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당시 이곳이 형식적으로는 진위군의 읍치(邑治)였기 때문이다. 진위군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이전까지만 해도 안성천과 진위천을 경계로 진위천 동쪽(평택, 송탄, 고덕, 진위, 서탄)에는 진위군, 서쪽은 수원군, 안성천 남쪽의 팽성읍에는 평택군이 있었다. 당시 진위군의 읍치(邑治)가 봉남리였는데 이것이 1914년 진위군, 수원군, 평택군이 진위군으로 통폐합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평택지역 3·1운동 봉기도>



※ 자료출처 : <평택시사신문>

71) 성주현, 앞의 글

72) 이병헌, 『3·1운동 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에는 "1919년 3월 22일 현덕면 권관리의 천도교인 이민도, 이승엽, 최리래, 최혁래, 장용준, 이인수, 최종환, 이민익, 최정래, 최우섭 등을 평택경찰서에서 호출하여 엄중한 신문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민도는 아들이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더욱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기록했으며, 진위면 야막리의 박종구(남, 1904년생)씨도 만세운동이 전개된 뒤 마을주민들이 집뒤짐을 당하고 잡혀가서 손톱이 뽑히는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앞에서 '형식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1910년대 중, 후반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진위군청의 평택역전 이전운동이 전개되고 경찰서와 우편소, 금융기관이 평택역전에 설치되면서 사실상의 정치, 행정기능은 평택역전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북부지역의 만세운동은 진위면(북면) 봉남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봉남리나 은산리, 야막리, 사리의 시위 군중들이 봉남리로 진출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면 시기별로 평택지역의 만세시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자.

위의 지도를 살펴보면 평택지역에서는 3월 9일 현덕면에서 처음 만세시위가 전개된 뒤 4월 10일까지 23회의 시위가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시위가 전개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인은 성주현이 작성한 것과 여타의 기록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했다[73].

<평택지역 3·1운동 발생지역>[74]

날짜	장소	중심인물	인원	검거자	출전
3월 9일	현덕면 기산리 옥녀봉, 권관리 계두봉	이민도 외			국내자료
3월 10일	오성면 숙성1리		150여명	연행 8명	국내자료
	청북읍 토진리, 현곡2리 신포장터				국내자료
3월 11일	평택역전	이도상, 목준상, 한영수 외	수십 명	13명(5명 구속, 8명 훈방)	판결문, 『매일신문』
3월 21일	진위면 야막리	박창훈	500여명		국내자료
3월 31일	진위면 봉남리	박성백, 최구홍, 유동환, 전영록, 유만수 등	500여명	6명 구속	판결문

73) 성주현, 「평택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앞의 논문 101쪽. 성주현은 일본 측이 작성한 조선군사령부의 정보와 『매일신보』, 구속자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표를 정리했다

74)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 재검토와 전개양상」 191~201쪽 재인용

날짜	장소	중심인물	인원	검거자	출전
4월 1일	평택역전		3,000여 명+400명	사망1명, 부상4명	일본 측 기록
	서면, 부용면(팽성읍)				국내자료
	송탄면 독곡리		500여명	2명 사망	국내자료
	고덕면	황순태 외			국내자료
	청북읍 백봉리, 오성면 안화리	안육만, 최만화, 김원근 외		6명 구속	판결문
	진위면(북면) 은산리	정경순, 정재운, 정문학, 최선유	약간 명	2명 구속	판결문
4월 2일	진위면(북면), 송탄면(현 이충동, 중앙동, 지산동) 등			사상자 약간 명	국내자료
	오성면 안중리				일본 측 자료
4월 3일	서탄면 금암리, 사리	윤기선, 윤교영, 한성주, 윤대선			국내자료
	진위군 여러 개 마을 오성면 학현리 봉오산	김용성, 공재록, 이사필	약간 명		판결문
4월 9일	고덕면, 진위면, 서탄면 금각리	시위 후 평택역전으로 이동	100여명 40여명	6, 7명 사망, 60여 명 부상	일본 측 자료
4월 10일	서탄면 금암리		100(40)여명	사망1명, 부상 약간 명	일본 측 자료
	서탄면 사리		500여명		국내자료
	서탄면 수월암리		다수		국내자료

위 표에서 보다시피 평택지역 3·1운동은 3월 9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전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했다. 특징적인 것은 대체로 3월 중순까지는 천도교인들과 3월 11일 평택역전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시위가 농촌지역으로 확산되는 4월 1일을 전후해서는 농민층이나 관료층, 천도교인 할 것 없이 전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이 연대하여 대규모 시위가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4월 1일 전후에는 지역 별로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시위가 평택역과 진위면 봉남리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고, 면(面) 단위 지역에서는 산 위에 불을 놓거나 봉화를 올리는 방법으로 상호연대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위방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에는 평화적으로 전개되던 시위가 3월 31일 봉남리 만세시위와 4월 1일 평택역전, 그리고 전 지역에서 발생한 연대시위를 계기로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예컨대 3월 31일 봉남리에서는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500여 명의 민중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했는데, 이들은 면사무소로 몰려가서 면장을 끌어내 앞에 세우고 만세를 강요했고[75], 4월 10일 경 고덕면에서는 일본군 8명과 자위단 8명이 선동자를 검거하기 위해 마을을 순찰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주민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 같은 주민소요에 대해 일본군은 발포하며 진압했는데 이 날 발포로 6, 7명이 죽고, 6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일본군이 위협을 느껴 발포했다는 것은 이날의 시위가 매우 폭력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밖에 서탄면 금암리에서는 40여 명[76]의 주민들이 주재소를 습격하는 일도 있었다.[77] 이처럼 평택지역의 만세운동은 4월로 접어들면서 민중들의 저항도 폭력적으로 변해갔으며, 일제는 발포하고 검거하는 등 강경진압으로 조선인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포섭된 관료층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평택지역의 특징적 요소다. 서탄면장 윤기선은 서탄면 사리에 거주했는데 대한제국 때 관직에 진출하여 궁내부(宮內府) 시종(侍從) 벼슬을 했던 인물이다[78]. 서탄면 사리는 마을규모가 크면서도 단일마을로 구성되었고 칠원 윤씨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어 상호 결속이 강했다. 윤기선은 낙향 후 1917년 조선 면제(面制)가 실시될 때 지역 유지층을 포섭하려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서탄면장에 취임했다.

그러다가 평택지역에서도 3·1운동이 발생하고 사리(寺里) 앞마을이었던 진위면 야막리의 천도교인들이 앞장서자, 1919년 4월 2일 면서기 한성수를 시켜 각 마을의 구장(이장)들에게 동민(洞民)들을 대동하고 금암리 면사무소 앞으로 모이게 하였다. 400여 명의 면민들이 모이자 '세계의 대세로 보면 조선은 독립할 시기에 이르렀다... 계속 투쟁하라'고 선동하며 앞장서서 만세를 불렀으며 같은 마을의 윤교영, 윤대선은 격문을 돌리고 시위를 독려했다[79].

이날 시위를 주도했던 윤기선과 협력했던 윤교영, 윤대선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무죄로 풀려났지만 이후 서탄면의 만세시위가 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등에서 발생하고 폭력적으로 변한 것을 보면 그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75)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자.
76) 일본측 기록에는 40여 명이라고 하였고 조선 측에서는 100여 명으로 기록하였다.
77) 『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자.
78) 『승정원일기』 고종 35년 윤 3월 18일(1898년 光武 2년)
79) 성주현, 「평택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앞의 논문 104쪽.

<숫자로 본 평택3·1만세운동>

숫자로 본 평택3·1만세운동

평택3·1만세운동 봉기도

1 경기남부지역 처음으로 봉기한 평택 3·1만세운동은 남한의 3대 항쟁지인 화성의 3월 28일, 안성과 천안의 4월 1일 봉기보다 앞서 진행돼 타 지역으로 전파

23 당시 진위군 내에서 23회의 3·1만세운동이 진행됐으며, 일제는 평택 만세시위를 "그 어느 곳보다 광포(狂暴)한 것"으로 기록

39 평택지역 3·1만세운동은 3월 9일 현덕면 권관리 계두봉과 옥녀봉에서 봉기

64 4월 중순까지 진행된 평택지역 3·1만세운동으로 64명의 군민이 사망·옥사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순국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평택3·1만세운동 주도자

104 현재까지 확인된 평택지역 3·1만세운동 유공자

174 부상자는 174명이 발생

257 257명이 일경에 의해 체포

526 현덕면을 시작으로 확산된 평택지역 3·1만세운동은 5월 26일 마지막으로 진행

6000 평택지역 3·1만세운동에는 6,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죽백동과 청용동 등 편입지역이 있어 실제로는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자료출처 : <평택시사신문>

마지막으로 참여계층을 살펴보자. 평택지역은 천도교 지도층과 관료층, 상인층, 농민층, 학생층이 고루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이것은 평택지역의 만세운동이 경기남부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참여계층의 신분과 직업, 학력 그리고 상호 간의 인과관계를 소상히 밝힐 수 있는 사료는 '판결문'과 단편적인 기록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역 3·1운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참여계층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제한적이지만 선행연구와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참여계층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아래에 제시한 표는 평택지역 3·1운동 당시 옥고를 치른 인물들의 나이와 직업 등을 정리한 것이다[80]. 표에 따르면 당시 만세운동의 주도층은 20, 30대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81]. 이들은 직업은 3월 11일 평택역전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도상, 목준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다. 이들 외에도 앞서 살펴봤듯이 안충수를 비롯한 학생들도 다수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만세운동 초기에 1천 여 명의 다양한 계층이 평택역전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이날이 평택장날이었기 때문이다. 3월 31일 봉남리 만세시위를 주도한 중심은 성주현의 주장대로 천도교인들이 분명하다. 하지만 박성백처럼 정미의병에 가담했던 인물도 있었고, 표에는 없지만 진위면 은산리 만세운동을 주도한 정경순처럼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민족의식이 발현하여 나선 인물도 있다.

평택지역 3·1운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계층은 천도교인들이다. 현재 사료로는 1919년 당시 평택지역에 천도교인들의 수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진위면 야막리의 경우 30호 내외의 주민들 대부분이 천도교인들이었고, 봉남리, 서탄면 회화리 신야리마을, 고덕면 문곡리,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기산리 등에 천도교인들이 다수 거주했으며 면전교실과 교구까지 설치했던 것을 보면 그 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평택지역 천도교인들은 중앙이나 수원교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견문을 갖췄던 것으로 파악된다.

천도교 연구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성주현은 1910년대 평택지역 천도교인들은 나중에 천도교 구파로 분류되는 인사들과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진위교구나 고덕면전교실, 현덕면전교실에는 3년제 교리강습소가 설치되어 천도교 교리 뿐 아니라 역사와 지리, 과학 등 근대학문을 가르쳤다고 하였다[82]. 이것은 3·1운동에 참여했던 이민도, 박창훈 등 천도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은 농민임에도 근대적 지식과 견문이 있

80) 안성시의 원곡·양성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22명은 제외했다.
81) 서탄면장 윤기선과 윤대선은 예외로 한다.
82) 성주현, 「3·1운동과 평택지역의 움직임」 앞의 책

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판결문에 나타난 평택지역 3·1운동 주요 인물들의 직업과 형량>[83]

이 름	나이	직 업	형 량	비고
이도상	30	미곡상	징역 8월	
목준상	29	미곡상	징역 8월	
심현섭	32	농업	징역 8월	
한영수	28	농업	징역 8월	
최만화	24	농업	징역 6월	
안육만	20	농업	징역 1년	
안희문	21	농업	징역 6월	
황태순	31	농업	징역 6월	
정수만	20	농업	징역 6월	
홍기성	36	농업	징역 6월	
박성백	30	농업	징역 1년	
최구현	22	농업	징역 1년	
유동환	24	농업	징역 1년	
전영록	20	농업	징역 1년	
유만수	26	농업	태 90	
김봉희	29	농업	태 90	
윤기선	54	서탄면장	무죄	
윤교영	39	농업	무죄	
한성수	32	공무원(면서기)	무죄	
윤대선	55	교원	무죄	
김용성	26	서당교원	징역1년	
공재록	25	농업	징역1년 6월	
이사필	32	농업	징역1년 6월	

83)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의 재검토와 전개양상」, 앞의 논문 213쪽 표2) 수정 인용.

<평택지역 3·1운동 주요 인물>

권태휘

김영상

김용성

남상환

박호성

신태호

심인택 1

심인택 2

안육만

안재홍

안재홍 2

안재홍 3

원준식

유한종

이규선

이도상

이사필

이익종

이재록

이종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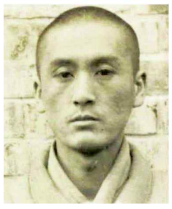
이종필 2

이종필 3

이종필 4

전영록

천선동


최광일

최구홍

최수일

최웅진

최웅진 2

한준택

김종국

박인종

이규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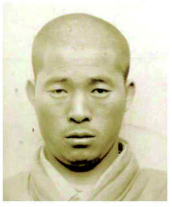
이두종

이일영

이일영 2

이전용

조창원


최삼준

※ 자료출처 : <평택시사신문>

천도교인들 외에도 평택지역 3·1운동의 주도층들은 초등교육 수준의 근대교육과 서당교육을 받은 농촌지식층들이었다. 예컨대 3월 11일 평택역전 만세시위로 검거된 14명 가운데 안충수를 비롯한 5명은 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이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하다가 검거되자 학교교장이 나서서 신원보증을 한 뒤 풀려나게 했다는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 비전리(현 비전2동)의 안종철은 어인남리 마을의 대지주로 근대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오성면 양교5리 사람으로 3월 11일 평택역전 만세시위로 구속되었던 한영수와 평택역전의 미곡상이었던 이도상과 목준상도 근대교육의 수혜자로 거론된다. 서탄면장 윤기선과 윤교영, 진위공립소학교 교원 출신의 윤대선은 일정수준 이상의 근대교육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특히 윤대선처럼 소학교 설립 초기 교원으로 파견된 사람들 중에는 관립 한성사범학교 출신들이 많았다. 이밖에도 오성면 숙성리에서는 숙성1리의 개량서당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당시 주도계층의 교육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5. 맺음말

평택지역 3·1운동은 전 지역에서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족운동이며 민중운동이었다. 또 일제가 '광포(狂暴)하다'고 표현했을 만큼 격렬하고 적극적이었으며 관료층, 농촌지식인층, 상인계층, 농민층, 학생층 등 신분과 계층을 망라한 전 민족적 운동이었다. 참여인원에서도 진위군의 인구가 6만 여 명이었던 시기에 연인원 6천여 명이 참가했고[84], 257명이 체포되었으며, 사망 64명, 부상 174명이 발생했다[85].

평택지역 3·1운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경기남부지역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전 지역에서 봉기했다.[86]

둘째, 세 곳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3월 9일에는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현덕면 옥녀봉과 계두봉에서 시작되었고, 3월 11일에는 경부선 철도 평택역이 설치 후 근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던 평택역전이 중심이 되었으며, 근대 이후 구도심으로 밀려난 진위면 봉남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84) 참여인원은 일제의 기록에는 ' 수 십 명, 또는 수 백 명'이라는 표현이 많고, 우리 측 기록에는 그 보다 많은 인원으로 계수된 것들이 많아서 정확하지는 않다. 또 안성시 원곡·양성과 인접한 도일동, 칠원동과 1983년에 평택시로 편입된 평택시 죽백동과 월곡동에서도 최소 1백여 명 이상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 지역의 인사들로 옥고를 치은 사람만도 20명이나 되었다.

85) 평택시의 3·1운동 참가인원은 안성시 원곡·양성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죽백동, 월곡동, 도일동의 참가자를 제외한 인원이며, 안성시의 26명 사망, 태형41, 177명 투옥보다도 많은 숫자다.

셋째, 근대학교와 서당, 천도교 교리강습회 등으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농촌지식인층들이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넷째, 초기에는 천도교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농민층, 상인층, 학생층 등 일반 민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확대되었다.

다섯째, 초기에는 비폭력적으로 전개되다가 일제의 검속과 탄압이 강화되면서 점차 폭력적으로 변했다.

평택지역은 3·1운동 이후 민족의식이 각성되면서 민족운동, 사회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조헌처럼 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로 건너가서 활동했던 인물들도 있었으며, 이택화처럼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활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인물도 있었고, 황로태처럼 '독립단'을 조직하여 군자금 모금활동을 했던 인물, 심인택처럼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한 인사들도 있었다. 또 청년운동을 위시해서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사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 부문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 참고문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문』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8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14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김해규 외, 『근현대 평택을 걷다』, 2015
허영란, 「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유통구조의 재편」, 『역사문제연구』제2호, 1997
김방, 「평택지방의 3·1독립만세운동」,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 평택문화원·(사)민세 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2009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 『소사벌』 22호, 평택문화원, 2009
박철하,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안재홍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구』, 선인, 2014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의 재검토와 전개양상」, 『안재홍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구』, 선인, 2014
김해규, 「일제하 평택지역의 사회운동」, 『안재홍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구』,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선인, 2014

기 조 발 제 ③

안성 3·1운동의 특징과 기념사업

기조발제자 / 김 대 용
안성3·1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0년의 시간 속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다. 한국독립운동의 과정 속에서 1919년 3.1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업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안성은 3.1운동을 상징하는 전국적인 성지이다. 300여명에 달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중심지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분포한 지역이다. 게다가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써 3.1운동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

안성의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의 재판에도 인용될 만큼 일제에 대한 항거가 거세게 일었던 사건이었다. 참여 인원의 규모와 전개된 양상, 일제의 탄압에 의한 피해 상황을 되돌아 볼 때 안성의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안성에서는 일찍부터 3.1운동 관련 선양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독립운동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안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써 안성의 독립운동을 한국독립운동운동의 집약판이라 불릴 수 있게 되었다.

2. 안성 3.1운동의 전개 양상

1) 양성·원곡면

안성에서의 첫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1일 양성공립보통학교(현 양성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날 오전 11시경 학생들이 교정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킨 것이었다.[87] 이 시위의 촉발에 영향을 준 것은 당시 양성면 덕봉리 출신으로 서울에서 보성전문학교를 다니던 남진우와 같은 마을 출신으로 선린상업학교를 다니던 고원근이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3.1운동을 목도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며 시위의 발단이 되었다.

87)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 3, 1979, 46쪽.

그러나 안성 최초의 만세운동은 한국인 교사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인근에 양성경찰주재소가 있었기 때문에 혹여 순사들의 출동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설득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 지역에서 만세시위의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었다.

안성에서의 만세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3월 말경부터였다. 이보다 앞서 원곡면의 최은식, 이덕순, 이근수, 최두환, 남상우 등은 고종의 국장(國葬)을 참관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였다가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하였다.[88] 이들은 며칠 뒤 귀가하여 원곡면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이 되었다.

주도자로 나선 최은식, 이덕순, 남현서, 홍창섭, 이근수 등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3월 28일부터 지문리, 내가천리, 외가천리, 월곡리, 죽백리 등의 마을 주민들이 원곡면사무소에 모여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다음날은 29일과 30일에도 원곡면 내의 각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31일에도 만세를 부르고 자진 해산하는 등 만세운동이 고조되었다. 연이은 만세운동으로 원곡면 전체로 만세운동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만세운동의 움직임은 4월 1일 대대적으로 폭발하였다. 외가천리에 소재한 면사무소 앞으로 주민들이 집결하여 독립만세를 연호하기 시작하였고, 오후 8시경에는 1,000여명의 주민들이 면사무소 앞에 모여들었다. 군중들과 함께 있던 주도자 이유석은 면장과 면서기를 끌어내어 만세를 부르게 하고, 선두에 세워 태극기를 들게 하고 양성으로 향하였다. 그 뒤를 이어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행진을 시작하였다.

만세 행렬이 양성으로 넘어가는 고개(현 만세고개, 안성3.1운동기념관 위치)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자 주도자인 이유석, 홍창섭, 이덕순, 이근수, 최은식, 이희룡 등이 번갈아 나와 주민들의 사기를 독려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모두 고무되었으며, 양성면으로 다시 이동하면서 돌과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읍내로 향하였다.

원곡면 주민들이 양성 읍내로 진입할 당시 양성면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양성면의 덕봉리, 도곡리, 산정리, 추곡리, 석화리, 구장리, 명목리 등지에서 마을 주민들이 만세를 외치고, 양성면소재지인 동항리에 집결하였다. 오후 9시경 동항리에 모인 1,000여명의 주민들이 양성경찰관주재소에서 만세를 외치고 해산하려는 분위기였다. 이때 원곡면 주민들과 맞닥뜨리자 만세운동의 양상이 급변하였다. 양 면민이 합세하자 군중은 2,000여명으로 늘어났고 일본경찰은 당혹했다.[89]

88) 최은식 신문조서.
89) 판결문에서 이병철은 연합 군중 인원이 3,000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미 결의에 차있던 원곡면 주민들은 양성면 주민들과 연합하여 양성경찰주재소로 향하였다. 이들은 연합 군중은 일제 기관들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주재소를 향해 투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군중들의 위압감에 위협을 느낀 일본경찰은 주재소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틈에 이유석, 이덕순, 최은식 등은 주재소의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하였다. 게다가 다른 참가자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으면서 주재소는 삽시간에 소실되었다.

이어 연합 군중들은 양성우편소와 양성면사무소를 차례로 습격하여 집기와 서류, 금고 등을 꺼내어 소각시켰다. 또한 통신 전주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리고 불태우는 등 시위의 양상이 격화되었다. 그리고 양성면에서 거주하며 잡화점, 상점, 고리대금업을 하던 일본인들의 가게와 집을 습격하여 파괴하였다.

한편 양성면에서 거센 만세운동을 펼친 원곡면 주민들은 다음날 새벽 다시 원곡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집기와 서류들을 완전히 소각시키고 건물을 파괴하였다. 이들은 평택으로 가서 경부선 철도를 파괴하고자 모의하였으나 일본군수비대의 출동 소식을 듣고 모두 피신하였다.

이러한 4월 1일과 2일에 걸쳐 일어난 원곡·양성의 만세운동은 적극적인 실력항쟁을 펼쳐 일제의 통치기관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지역을 이틀간 해방의 공간으로 만들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2) 읍내면

안성의 통합 이후 중심지로 부상한 읍내면은 관공서가 들어서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자연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많은 정보들이 읍내로 집중되었다.

양성면에서 시작된 안성의 만세운동은 같은 날 저녁 8시경 읍내면에서도 발생하였다. 안성장의 상인들을 비롯한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안성경찰서의 일본경찰은 즉각 출동해서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주도자를 체포하였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안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만세운동을 재차 시도하였지만 이를 감지한 일본경찰들에 의해 18명의 학생들이 체포되고 경찰서에 구금당하면서 일찍 진압되었다.[90]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만세운동의 발생 정보를 입수한 일본경찰은 안성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날 것에 긴장하고 있었다. 특히 사람들이 대거 모이는 장날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일본경찰의 삼엄한 경계와 감시로 안성에서는 한동안 만세운동의 움

90) 『매일신보』, 1919년 3월 15일자.

직임이 드러나지 않았고, 주민과 일본경찰 간의 긴장감만이 고조되었다.

3월 28일 읍내면 동리의 서순옥이 주민 20여명과 함께 마을에 있는 산에 올라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읍내면에서의 만세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이어 3월 29일 장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진공필이 수십여 명의 주민과 함께 만세를 불렀으며, 오후 8시경에 군중들이 군청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해산하기도 하였다.

3월 30일에는 장기리 시장에서 주민 수십 명이 만세를 불렀다. 이때 서리에 사는 이경수가 주민 500~600여명과 함께 동리, 서리, 장기리 일대를 돌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날 밤에 읍내에서 100여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시작하자 도기리, 장기리, 동리, 서리의 주민 1,000여명이 안성경찰서, 안성군청, 읍내면사무소 앞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91]

3월 31일에도 읍내면에서는 각 마을 단위로 다발적인 시위가 이어졌다. 동리에서는 주민 200여명이 서리, 장기리 일대를 순회하며 만세를 불렀으며, 서리에서는 주민 100여명이 동리에서 자동차업을 하는 이택승에게 가서 일본군을 수송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기리의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가서 문을 닫고 만세를 부르라고 하였다. 장기리에서는 주민 400여명이 행렬을 지으며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날 오후 4시경 안성조합기생들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시작하자 주변의 주민들이 모여들어 1,000여명의 군중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군청과 경찰서, 면사무소 일대를 행진하며 만세를 부르다가 오후 6시경에 자진 해산하였다.[92] 그러나 오후 7시 30분경 다시 3,0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등불을 들고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을 이어가다 면장의 설득으로 자진 해산하는 등 대규모의 만세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원곡과 양성에서 큰 만세운동이 있었던 4월 1일 1,000여명의 군중들이 동리, 서리, 장기리 등에서 만세 행진을 전개하였다. 2일과 3일에도 장기리의 시장 일대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거센 만세운동을 벌였다.

3) 죽산지역

죽산 지역에서는 학생과 주민들에 의해 경찰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등이 파괴되는 실력항쟁의 양상을 보였다. 이죽면(현 죽산면)에서는 4월 1일 죽산공립보통학교의 학생인 양재옥·안재헌 등이 교정에서 약 5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두현리 앞 도로

91)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자. 이때 면사무소를 습격해 유리창이 깨지고, 안성군청에서 군수에게 만세를 부를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92)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자.

수선에 동원된 장계리 주민 100여명이 학생들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죽산리로 이동하여 죽산경찰관주재소와 이죽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죽산시장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전날 만세운동을 펼쳤던 양재옥·안재헌은 학생들을 이끌고 죽산시장에서 태극기를 앞세워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당시 죽산리에 사는 윤규희는 태극기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만세를 불렀으며, 장계리에 사는 최창혁·김용규는 수십 명의 학생 및 시장 주민들과 함께 죽산시장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

이때 서울 남대문에서 이미 만세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인영은 군중들에게 관공서나 일본인에게는 폭행 또는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연설을 한 후 이죽면사무소, 죽산공립보통학교, 죽산경찰관주재소, 죽산우편소 등지를 돌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93]

이날 밤에는 죽산시장을 중심으로 1,000여명의 군중들이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시작하자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들어 2,000여명의 군중을 형성하였다. 군중들은 죽산경찰관주재소와 죽산우편소, 이죽면사무소로 가서 만세를 외치고, 주재소와 우편소에 투석하여 유리창을 부수기도 하였다. 그리고 4월 3일 새벽까지 이어져 주민 300여명이 만세를 부르며 면사무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94]

한편 일죽면에서는 4월 2일 장암리 마을 구장인 곽대용이 주민 200여명과 함께 주천리의 주천경찰관주재소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 이날 월정리에 거주하는 권병희는 주민 100여명과 함께 주천리로 이동하여 주천리 마을 주민 100여명과 합세하여 주천경찰관주재소, 일죽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날 밤에 송천리의 주민 약 200여 명이 일죽면사무소와 추천리경찰관주재소에서 기와 조각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삼죽면에서도 4월 3일 오전 5시경 약 300명의 주민들이 진촌리에 있는 삼죽면사무소를 공격하였다.

죽산 지역에서의 만세운동 4월 1일부터 4월 3일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약 2,000~3,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죽산지역의 주민들은 원곡·양성의 실력항쟁과 유사하게 일제의 통치기관인 주재소와 우편소, 면사무소를 응징하는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93) 이인영은 경성 조선약학교 1학년으로 3월 5일 경성의 남대문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부친에 의해 친족 집인 이죽면 매산리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9, 1994, 195쪽.
94) 안성3.1운동연구소 편,『안성3.1독립운동』, 안성문화원, 2012, 149쪽.

4) 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

일제는 3.1운동 직후 경찰과 군병력을 동원하여 만세운동 참여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진압 과정에서 총칼은 물론 발포를 통한 무차별 사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만세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안성도 진압 과정에서 체포 및 사상자가 속출하고, 주동자와 참여자들에게 대한 검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첫 시위가 있었던 3월 11일에는 읍내면에서 주동자와 학생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구금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원곡·양성을 비롯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읍내와 죽산 지역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으로 6,000여명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의 참여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약 1주일 간 전개된 만세운동에 대규모의 참여자가 증가한 것도 전국에서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안성 전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부정과 통치기관 파괴로 표출된 사건으로 발생 지역의 토벌과 참여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산발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위기를 느낀 일제는 3월 31일부터 경찰과 군병력을 동원하여 진압을 시작하였다. 특히 원곡·양성면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여러 차례 일본군이 출동하여 주동자와 참여자들을 색출·검거하였다. 대규모로 전개된 시위로 안성지역 주둔 병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해 수원과 평택의 병력을 투입시켜야 할 정도였다.

<일제 군 병력 출동 상황>[95]

일자	장소	소속(보병)	출동 인원	발포개소	전 거	비고
3.31.	안성군 안성		장교 (이하) 6명		(기3)146쪽*	
	안성(3회)		6명	1	(기3)415·461쪽	
4.1.	양성면		장교 이하 9명		(기3)152쪽	
	양성 양성		9명	1	(기3)416쪽	
	안성 (양성)	(평택)	장교 이하 10명		(기3)180쪽	
4.2.	이죽 죽산리	79연대	상등병 이하 4명		(기1)238쪽	
	안성 죽산		4명	1	(기3)419쪽	
	(일죽) 화산		하사 이하 4명		(기3)180쪽	
4.3.	이죽 죽산리	79연대	상등병 이하 4명		(기1)239쪽	
	양성면	79연대	장교 이하 25명		(기1)239쪽	
4.19.	양성면	79연대	하사 이하 30명		(기1)242쪽	
6.1.	양성면	79연대	하사 이하 36명		(기1)242쪽	

(*전거의 (기1) (기3)은 『한국민족운동사료』(삼·일운동편 기1·기3)(국회도서관, 1979)을 말함)

95) 안성시·한국근현대사학회, 『안성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인물』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6, 68쪽 재인용.

당시 현장에 도착한 병력은 작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살인, 방화, 고문, 구타 등 무력을 동원하여 만행을 저질러 검거 작전을 만회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276호의 가옥이 소실되고, 사상자 43명, 800여명의 주민들이 체포되었으나 실제 확인되지 않은 부상자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을 취조하기 위해 수원과 개성에서 2명의 검사와 서기 2명이 안성경찰서로 파견되었으며, 검거 인원이 너무 많아 경찰서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 이에 인근 안성공회당에 구금하였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한다.

검거된 인원들 중에서 41명은 60~90대의 태형을 받았으며, 177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은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고문과 구타 등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으며, 일부는 구금 중 또는 재판 중, 옥고 중에 순국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원곡·양성의 만세운동 참여자들은 127명이 기소되어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 최종 판결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고 12년의 중죄 형량이 선고되었다. 또한 1인당 최고 409엔에 달하는 손해배상금까지 부담시켰다. 이것은 당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기소 및 선고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당시에 발행되던 『동아일보』와 『매일신보』, 『조선일보』는 원곡·양성의 만세운동을 '안성사건'이란 토픽으로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재판의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알렸다. 다른 지역의 3.1운동 소식에 견주어 볼 때 세간의 관심이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특히 경기도 안성의 원곡·양성을 평안북도 의주군, 황해도 수안군과 더불어 3.1운동의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 두 지역은 북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이 유일하게 실력항쟁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

3. 자료를 통해 본 안성의 만세운동가

안성의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자료는 판결문과 범죄인명부,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3.1운동 피살자명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안성 관련 판결문은 525건이다(2016년 10월 31일 기준).[96] 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안성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는 181명이다.[97] 대부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으나 서훈을

96) 안성시, 『안성의 독립운동가』, 2017, 23쪽.

받지 못한 미포상자도 29명이 있다.

지역별 참여자들을 구분해 보면 읍내 23명, 죽산지역 28명, 원곡·양성 129명으로 판결 처분을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원곡·양성면이다. 이 지역은 거주 인구 비율에 비해 검거된 참여자도 월등히 높았으며, 기소된 인원도 가장 많았다.[98] 그리고 읍내 및 죽산지역의 참여자들에게 제기된 죄명이 보안법위반과 소요였지만 원곡·양성면의 참여자들에게는 내란죄가 적용되었다. 그러다보니 내란죄를 담당하는 고등법원에서 당초 이 사건을 심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성지방법원으로 재판소를 새로 지정하고, 보안법위반, 건조물 손괴, 기물 손괴, 공문서 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99] 이에 따라 다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기에 만세운동이 전개된 지 1년 9개월 21일이 지나서야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100] 이 판결로 만세운동의 주동자였던 최은식과 이희룡은 이례적으로 징역 12년의 최고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옥고를 치러야 했다.

한편 읍내의 만세운동에 참여자들은 징역 5월에서 8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태형 90대를 받았다. 죽산지역의 만세운동에 참여자들은 징역 6월에서 1년 2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태형 50대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량의 차이는 원곡、양성의 만세운동이 더욱 격렬하게 일어났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일제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범죄인명부는 각 읍면에서 해당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범죄자들을 따로 분류하여 편철한 행정자료이다. 일제강점기에 생산한 범죄인명부에는 일반 민생관련 범죄기록이 작성되어 있지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형량을 받은 기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에서 파악하지 못한 개별 인물에 대한 활동 기록이 적시되어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안성에서는 현재 2개면의 범죄인명부를 확인하였다.[101] 양성면의 범죄인명부에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는 인물들의 상당수는 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국가보훈처의 포상기준에 미달되어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102] 이 명부에는 40명의 만세운동 참여자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4명을 제외한 36명은 포상기준에 미달된다.

---

97) 이중 1명(황연성)은 3.1운동 당시 공주군 신하면 백교리에 거주하면서 신상면 유구 장터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98) 고등법원에는 127명이 공소되었지만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되는 동안 2명이 순국하여 125명이 판결을 받았다.
99) 판결문(고등법원, 1920.3.22.)
100)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1.1.22.)
101) 1988년 양성면에서 서고 정리를 하다가 296명의 범죄기록이 담긴 명부를 발견하였으며, 2016년 독립운동 인물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죽면의 서고에서 333명의 범죄기록이 담긴 명부를 새로 발굴하였다.
102) 국가보훈처의 최소 포상 기준은 징역 3개월 이상, 태형 90대에 설정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기준에 대해 논란과 개정 요구가 증가하자 기준 설정에 대해 재차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죽면의 범죄인명부에는 2명이 확인되는데 판결 시기와 죄명 등을 감안할 때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제에 의해 검거되어 구금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에 대한 '수형기록카드'를 소장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경찰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에는 죄명、형량 등의 수형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103] 이외에도 수형 사실은 없지만 경찰부에서 감시대상 인물로 지목된 인물들에 카드도 있어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라 불린다. 이 자료에 주목되는 점은 독립운동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교차 검증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카드는 총 6,264건의 인물카드가 존재하는데 안성 관련 인물 39명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만세운동과 관련된 인물이 18명으로 주로 읍내와 죽산 지역에서 활동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룬 분들이다. 여기에는 당시 인물들의 사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카드에 사진이 함께 부착되어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2013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3.1운동 피살자명부』에는 630명의 희생자 정보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3.1운동을 전후하여 총살, 옥사, 타살 등 희생자의 사망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해방 후인 1952년에 조사되었던 것이지만 순국 시기 및 장소,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전체 인원 중 경기도 지역의 인물은 169명이며, 안성의 인물은 1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11명은 이미 독립운동 행적이 확인되어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다.

이러한 안성3.1운동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한정적이다. 6.25전쟁과 이후 자료의 관리 부실 등으로 소실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그리고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유품 또한 당사자가 대부분 타계한 현재에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나마 앞에서 언급한 자료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좀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수집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4. 안성3.1운동 기념사업의 추이

1) 안성 독립운동가 발굴

1945년 해방을 맞이한 국내의 상황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건설 목표에 부합되지 못했다. 좌우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해방된 조국은 반토막이 되었고, 민족은 분열되어 있었다. 특히

103) 안성시, 『안성의 독립운동가』, 2017, 27쪽.

남한은 미군정 하에서 일제강점기 억압된 사회의식에 대한 표출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였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은 불안한 해방공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의 밑그림을 제시했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영합과 야합이 이루어지거나 충돌로 인해 희생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또한 일제강점기 부역자들이 정치, 행정, 사법, 경찰, 경제 등 사회 요직에 중용되거나 처단되지 못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이들에 의해 장악되어 갔다.

이러한 해방정국으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외면을 당하고 배척되었다.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교육의 부재로 사회 진출의 통로는 막히게 되었다. 게다가 독립운동을 했거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때론 고단한 짊이기도 했다.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 포상된 분은 총 14,830명에 이른다.[104]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할 때 극히 적은 인원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그 이유에는 우선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한계로 인해 활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엄혹한 시기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한 인물들에 대한 자료가 현재 남아있지 않은 사례도 많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한 인물들의 자료가 소실되거나 미발견 자료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는 연구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독립운동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확보와 연구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연구는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과 일부 기관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에 근거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외면 받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료 발굴이나 심도 있는 자료 분석이 수월하지 않다.

세 번째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의 문제이다. 1949년 이승만, 이시영의 훈장 수여 이후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은 1962년부터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공로의 수위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등급별로 수여·추서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상훈이 5개 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포상정책이 확대되었고,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던 포상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런데 포상 기준에 부합하여야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04) 2017년 11월 순국선열의 날 포상을 기준으로 건국훈장 10,795명, 건국포장 1,219명, 대통령표창 2,816명이 수여·추서되었다.

안성의 독립운동가들도 1962년부터 훈장을 추서 받았으며, 3.1운동 참여자들도 이듬해인 1963년부터 훈장을 추서 받았다. 이후 안성의 3.1운동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포상자들도 많아졌으며, 1990년에 96명의 독립운동가가 대거 포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앞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였듯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에 비해 독립유공자 수는 현저하게 낮다. 이에 안성에서는 일찍부터 3.1운동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 발굴을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 안성의 3.1운동이 주목을 받고, 포상이 이루어지면서 학술 연구가 진행되었고, 판결문 자료와 지역 자료들을 통해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였다. 2001년에는 196명의 3.1운동 참여자들을 확인하였으며, 2015년까지 231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찾아 추모사업을 벌여왔다.

한편 안성에서는 역사적인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신규 독립운동가 발굴 차원에서 안성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부터 다시 시작된 '안성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은 기존의 인물들에 자료를 재조사하여 독립운동의 사실적 근거를 재정리하였다. 또한 자료 간 교차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성 독립운동 관련 기초 사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물별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존 231명에서 신규 발굴을 통해 316명의 독립운동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105] 이 수치는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임을 증명해 준다.[106]

이렇게 많은 안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251명이다. 이중 169명이 포상되었지만 82명이 미포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대부분이 독립운동 사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었음에도 현재의 국가보훈처 포상 기준에 미달하여 서훈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안성에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까지 이들에 대한 포상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가급적 많은 인원이 포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그간 자료의 부족으로 교차 검증이 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안성의 독립운동사 영역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가 선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안성에서는 이러한 독립운동 자료들이 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DB구축을 통해 '안성 독립운동 인물 자료관'을 서비스하고 있다.[107] 여기에 축적된 자료들은 향후 안성의 독립운동 인물들을 교육하고,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105) 2017년 12월 말 기준이며, 자료 간의 교차 검증을 통해 독립운동이 확인된 인물들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6)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안성시에서는 2017년『안성의 독립운동가』자료집을 출간하였다.
107) 홈페이지 주소 https://www.anseong.go.kr/tourPortal/patriot.

2) 기념사업 현황

안성에서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이 1970년대 들어서였다. 기록에 의하면 안성의 대표적인 만세운동 지역인 원곡·양성에서 일찍부터 기념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계기는 1977년을 기점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포상(대통령표창)을 받으면서 유족회가 결성되고 기념행사를 추진하면서부터였다.

1979년 3월 1일 원곡국민학교(현 원곡초등학교)에서 유족대표와 지역 유지들의 발기로 '제60주년 3.1절 기념식'을 거행한 것을 계기로 1981년 4월 17일 결성되었다.[108] 유족회는 9월 28일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기념탑 건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유족들은 당시 3만원씩 2회에 걸쳐 모금하고, '추진위'는 400만원의 협찬금을 모으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념탑 건립에는 부족하여 1982년 3월 15일 외가천리 새마을회관에서 추진위를 확대 개편하여 당시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관장 및 각계 대표 유지들을 망라한 '기념탑 건립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또 당시에는 유일한 생존 독립운동가였던 이규동의 유족이 부지 800여평을 기부함으로써 진척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82년 8월 15일에 기념탑 기공식을 가지고 1984년 4월 1일 준공·제막하였다.[109]

이후 매년 기념탑에서 '3.1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고, 1990년에는 기념탑 주변에 소규모의 사료전시실(15㎡)을 마련하여 안성의 3.1운동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안성3.1운동기념관의 시초가 되었으며, 사실상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건립한 경기도 내 최초의 기념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91년에는 현재 기념관이 위치한 일대를 '성은고개' 또는 '양성고개'라 불리던 지명을 '만세고개'로 개칭하였다.[110]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이어 1994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중앙관심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전체 30,422㎡의 부지를 마련하고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의 재원으로 199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드디어 2001년 11월 17일 개관함으로써 지역인들의 숙원사업이 완성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되었다.

안성3.1운동기념관은 전시관과 체험관, 광복사, 무궁화동산, 3.1운동기념탑, 대형 국기게양대 등이 있어 나라사랑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매년 4월 2일에 안성4.1만세항쟁 기념식인 "2일간의 해방"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는 안성 독립운동가의 위패 316분을 모신 광복사에서 추모 제례행사를 개최하여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108) 유족회의 회장은 이돈영, 부회장 이종관·윤우, 총무 이규설, 감사 이종호였다.
109) 윤우, 「원곡-양성의 3.1독립운동」, 원곡-양성 3.1운동 유족회, 1986, 34~35쪽.
110) 건설부 768호, 1991.12.10.

안성 원곡·양성 만세운동의 대표적 성지인 만세고개에 건립한 안성3.1운동기념관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기억하는 장소이자 후세들을 위한 역사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유족회는 자립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미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이르기까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당시 유족회의 고문이 용인군 포곡면 영골의 12,500여평을 희사하여 '장학농장'을 설립하고, 유족들의 자원봉사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유족회의 노력과 선견은 40여 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유족회는 현재 존립하지 않으나 유족들로 이루어진 광복회안성시지회와 안성3.1운동 선양을 목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인 안성3.1운동선양회가 활동을 하며, 엣 유족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3)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독립운동 사적지는 독립운동과 관련한 사건의 장소, 인물의 생가, 활동 장소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재 해당 유적이 남아있거나 멸실·훼손되어 방치되어 터만 알려진 곳도 있다. 특히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는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있다.[111]

우리나라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은 넓은 범위에서 국가수호 관련 시설과 함께 현충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현충시설은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 901개소, 국가수호 시설 1,150개소로 전체 현충시설은 2,051개소에 이른다. 이 중 독립운동 관련 시설의 유형별 및 지역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112]

<현충시설 유형별 현황>

합계	사당	장소	조형물	생가	기념관	동상	탑	비석	기타
905	41	62	9	44	57	90	98	449	55

<현충시설 지역별 현황>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경남	제주
905	77	32	24	9	13	5	13	**81**	153	48	44	74	101	114	1	107	9

111)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의 장소 등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112)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 참조. 주제별로는 한말구국운동, 의병운동, 3.1운동, 애국계몽운동, 학생운동, 의열투쟁, 사회운동, 문화운동 민족주의운동, 해외운동,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수호 관련 기념관은 21개소가 있다.

2018년 1월 국가보훈처의 국내현충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 내 독립운동과 관련된 현충시설은 81개소가 있다. 이중 화성시가 10개소, 안성시가 3개소, 평택시가 3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현재 안성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안성 전역에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가 25곳이 확인된다. 이중 3.1운동과 관련된 곳은 무려 24곳이나 된다. 이것은 그동안 안성의 연구가 3.1운동에 집중되어 왔고, 관련 사적지 또한 다수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구 조사의 오류로 관련 장소가 잘못 비정된 곳이 여럿 확인되었다.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에서 조사한 국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가 자료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밝혀냈지만 지역 자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결여된 부분도 발견되고 있다.[113] 또한 각 지역에서도 장소에 대한 정확한 비정 없이 사적지를 무분별하게 양산해 내고 있는 상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독립운동 사적지는 여러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밝혔듯 정확한 역사적 장소의 비정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활용의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건물 또는 건축물, 조형물 등을 건립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소한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르고, 역사교육의 장소로써 이용될 수 있어야 하지만 활용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과 관광명소를 연계한 탐방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탐방 코스를 개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 부분이다.

그리고 사적지의 관리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건립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관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관심도가 낮아지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관리가 부실해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또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e-현충시설 국민지킴이' 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내외의 다수 분포되어 있는 사적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의 내용을 볼 때 우수 활용사례와 신고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의 분명한 목적은 현충시설에 대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정상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에 있다. 다만 현충시설의 관리 주체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다.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가능하다면 가장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현충시설의 관리 주체는 보훈단체이거나 시군 단위의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즉 국가보훈처는 지정만 이루어

113) 예를 들어 문화재청이 2017년 12월 18일 등록문화재로 예고한 옛 안성군청(현 안성1동 주민센터)은 3.1운동 장소로 조사되었으나 이 건물은 1928년에 이전 건립한 것이다.

지고 사후관리는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관리가 소홀해지는 현상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훈단체 관리 현충시설은 보수 등 관리 예산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지만, 지자체의 관리 대상은 그마저도 법령에 의해 제한적이다.[114)]

독립운동 사적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단면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곳이다. 따라서 역사적 장소로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립 단계에서부터 활용과 관리의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안성의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운동의 지역적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적극적인 실력항쟁을 통한 민족 항일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일제가 자행한 3.1운동에 대한 탄압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안성의 참여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성의 만세운동이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은 연인원 6,000명에서 8,000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참여인원이 1주일 간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신분과 종교를 초월하여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었다는 것이다.

만세운동 참여자들의 활동 사실은 일제측에서 기록한 자료들이 근거가 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료는 형을 선고한 판결문과 범죄사실을 기재한 범죄인명부, 감시를 위한 인물카드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행히도 안성의 만세운동 참여자들은 이들 자료를 통해 독립운동 활동 사실을 인정받고 독립운동가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서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포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안성에서는 그간 독립운동 인물 발굴 사업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독립운동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미포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안성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것이 안성의 역사를 밝혀내려고 하였던 유족들의 노력을 계승하는 것이며, 안성의 역사를 지키는 우리들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114)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되는 이러한 예산은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자체에는 지원할 수 없다.

기 조 발 제 ④

화성 3·1운동과 100주년 기념사업

기조발제자 / 이 혜 영
화성시 학예연구원

1. 머리말

3·1운동은 전 민족적 독립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사건이자 일제의 지배정책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저항의 원점이다. 그러므로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이래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역사 속으로부터 소환하여 전유하여 왔다. 특히 화성지역의 3·1운동은 비폭력의 원칙을 깨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반하였다. 1919년 4월 25일까지 파괴된 전국 47개소의 면사무소 중 2곳, 완전 파괴된 주재소 16곳 중 1곳이 화성지역에 해당한다.[115] 무엇보다 우리나라 3.1운동 시기 일본 경찰 2명을 타살한 유일한 지역[116]이 때문에 화성의 3.1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서 싸운 공세적 저항운동, 독립운동의 메카라는 수식과 함께 그 중요성은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무엇보다 제암리사건은 1919년 3.1운동 당시부터 국제사회의 이목과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성과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그에 비해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않았다. 이러한 지역내의 문제제기로 독립운동 자료의 조사수집의 토대를 마련하여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다. 현재 화성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 콘텐츠 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화성3.1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화성시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독립운동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화성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

1919년 3월 21일 동탄면의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전개되어 4월 15일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이 일어난 시점까지 이어진다.[117] 물론 개별적으로 고종 국장에 참여한다든지 종교세력과 연대하여 3.1운동을 전개한 경우는 있지만 지역에서 군중시위의 양상으로 전개된 것은 동탄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특히 화성의 3.1운동 시위가 무력항쟁적인 양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송산 3.1운동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이어 발안과 우정· 장안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화성전역에 80여 곳에 걸친 대대적인 횃불시위와 사강주재소 노구찌(野口廣三) 순사의 타살과 화수주재소의 가와바다(川端豊太郎)(川端豊太郎) 순사의 타살은 대대적인 보복과 방화, 학살로 이어졌다. 수촌리, 조암리, 화수리, 사강리 등의 마을은 방화되었으며 마구잡이식 체포와 구금, 학살이 이어졌다. 화성지역 3.1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일제의 보복사례가 바로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이라 하겠다.[118]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화성지역에서 전개된 화성지역 3.1운동의 시위상황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119]

115) 대한민국국회도서관, 「密受 제102호, 1919.5.15)」, 『한국민족운동사료』2(3·1운동편2),1978,7~9쪽.
116) 대한민국국회도서관, 「조선소요사건일람표(1919년 4월 말일 작성)」, 『한국민족운동사료』1(3·1운동편1),1977,359~360쪽.
117) 화성시의 3.1운동은 일제시기의 행정구역인 수원군의 3.1운동 속에서 설명되어 왔다. 때문에 1919년 3월 1일 방화수류정에서의 만세시위를 3.1운동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화성지역의 3.1운동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118) 제암리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제암교회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역기서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목적하에 자행된 학살이라는 의미로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으로 통일하겠다.

<화성지역 3.1운동 일람표>

날짜	지역	내 용
3.21	동탄	오산리 천도교인 박두병·김재천·김진성 등이 인근 마을과 기독교인들과 연락하고 평화적으로 만세를 부름
3.26	송산	송산면사무소 부근에서 주민 100여명이 태극기를 게양하고 만세를 부름
3.28	송산	송산면사무소 부근에서 주민 1,000여명이 만세를 부르고 순사 노구찌를 처단
3.29	양감	주민 수백명이 평택 청북면 율북리 주민들과 만세시위와 산상 횃불시위를 함
	태장	등불과 태극기를 휘두르며 산상 횃불 시위를 전개함
3.30	안용	군중 수백명이 북을 치며 등불을 들고 만세를 불렀고, 산상횃불 시위를 전개함
3.31	향남	1천여명의 주민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일본인가옥과 소학교 파괴
4.1	반월	6백여 명의 천도교인·기독교인·농민이 평화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임
4.3	장안 우정	주민민들과 천도교도, 기독교도가 주동이 되어 장안면사무소, 우정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2,500명의 군중이 참여함. 시위군중들은 우정·장안면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경찰관주재소를 불태워 버렸고,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순사를 처단
4.6	비봉	천도교인들과 기독교인 다수가 합세하여 만세를 부름, 2명검거
4.7	마도	천도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벌임
4.8	남양	군중시위
4.15	향남	발안장을 이용하여 4백여명이 만세운동을 벌임[120] 우정·장안면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순사들이 처단되자 일제는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하여 제암리교회에 무고한 주민 30여명을 가둬놓고 불을 질러 학살

① 송산·서신지역의 3.1운동

송산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3월 26일 일어났다. 이날 구장 홍명선의 집에는 호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 고종의 국장에 참여하고 온 홍효선이 다른 마을에서도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 우리도 만세를 부르자며 주민들을 독려하였다.[121] 이에 사람들이 동의하여 다함께 송산면사무소로 몰려갔다. 송산면사무소로 몰려간 시위대는 구한국기를 게양하고 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때 15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의 시위를 주도한 인물은 홍면옥, 홍효선이었다. 홍면옥은 송산면 일대에 세거하는 남양홍씨 참의공파의 문장격인 인물로 송산3.1운동의 주역이다. 홍효선은 고종의 국장에 참여하고 와서 면사무소 게시판에 "만세를 부르는 것은 독립을 구하는 것으로 만세를 부르는 사람은

119) 홍석창, 『수원지방3.1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출판사, 1983. 이정은, 「화성군 우정면 장안면 3.1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9, 1995.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한국기독교와 역사』7, 1997 이동근, 「수원의3.1운동전개와 성격」『수원시사』 8, 2014를 참조하여 재작성하였다.

120) 4월 5일에 만세운동이 발안장에서 전개되었다는 기록은 공훈전자사료관의 공저조서에서 서비스 되고 있다. 이정근의 순국일자도 4월 5일로 되어 있으나 후손에게 문의한 결과 이정근의 순국일은 1919년 3월 31일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121)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2권, 1996, 31쪽

조선인민이다. 만세를 부르지 않는 마을에는 방화한다"는 익명서를 게시한 인물로 추정된다.[122]

다음날인 3월 27일과 28일에도 사람들은 면사무소 근처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특히 3월 28일은 장날이었다. 시위대도 불어나기 시작하여 중송리 방향과 서신면 방면에서도 대한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강경찰관주재소의 노구찌(野口廣三)은 홍면옥, 예종구, 이규선 등을 붙잡아 두고 시위 해산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일본 순사에 의해 무릎이 꿇린 홍면옥을 보자 시위대는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어르신을 욕보인다' 면서 술렁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홍면옥은 일어나 만세를 연창하였다. 당황한 노구찌(野口廣三)이 총을 겨누며 그만하기를 종용하였으나 홍면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세차게 만세를 고창하였다. 시위대도 홍면옥의 연호에 맞춰 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에 노구찌(野口廣三)이 홍면옥에 총을 발사하였고 어깨에 총을 맞은 홍면옥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노구찌(野口廣三)는 남양방면으로 자건거를 타고 남양방면을 향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시위대는 '순사를 잡아 죽이자'라며 절규하고 도망가는 순사를 잡아 돌과 몽둥이로 타살하였다.

당시 홍면옥은 사강리에 거주하는 남양홍씨 참의공파를 이끄는 지도자이자 강한 민족의식과 문제해결력을 소유한 있었던 인물이었다.[123] 홍사웅의 증언에 의하면 노구찌(野口廣三)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홍면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위 장소에 홍면옥이 나타나자 무릎을 꿇리고 욕을 보였으며 일부러 홍면옥을 겨냥해서 총을 쏜 것이라고 하였다.

홍면옥의 총격사건은 군중들의 시위양상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선회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에 앞서 3월 26일 시위에서는 약 200여 명의 시위대가 송산면사무소로 몰려가 대한국 독립만세를 고창하라고 면장 홍달후와 면서기 5명을 면의 마당으로 끌어내어서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124] 그러나 3월 28일 홍면옥이 노구찌(野口廣三)에게 총격을 받자 면서기로 있었던 홍면옥의 동생 홍준옥, 홍준옥과 호형호제 하던 면서기 문상익[125]까지 가세하여 노구찌(野口廣三)를 처단하는데 앞장서는 등 이전의 시위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홍면옥의 총격사건은 집성촌이 갖고 있는 혈연적 유대감을 폭발시키고 민족감정이 발현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비폭력 원칙을 깨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 도망가는 노구찌(野口廣三)를 잡아

122) 홍효선은 체포되어 예심진행 중 사망 순국한 것이 입증인과 水原警察署의 事實調査回報와 水原報勳支廳의 출장확인 등으로 1919년 순국하였다. 공훈전자사료관, 홍효선 공적개요 참조
123) 홍사웅 증언(2013.12.17. 자택에서)
124)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1권, 1995, 226쪽, 「홍준옥 신문조서」 참조.
125) 문상익은 홍준옥과 둘도 없는 사이로 호형호제하며 의형제를 맺었다고 한다. 문광환 증언(2014.5.9. 자택에서).

처단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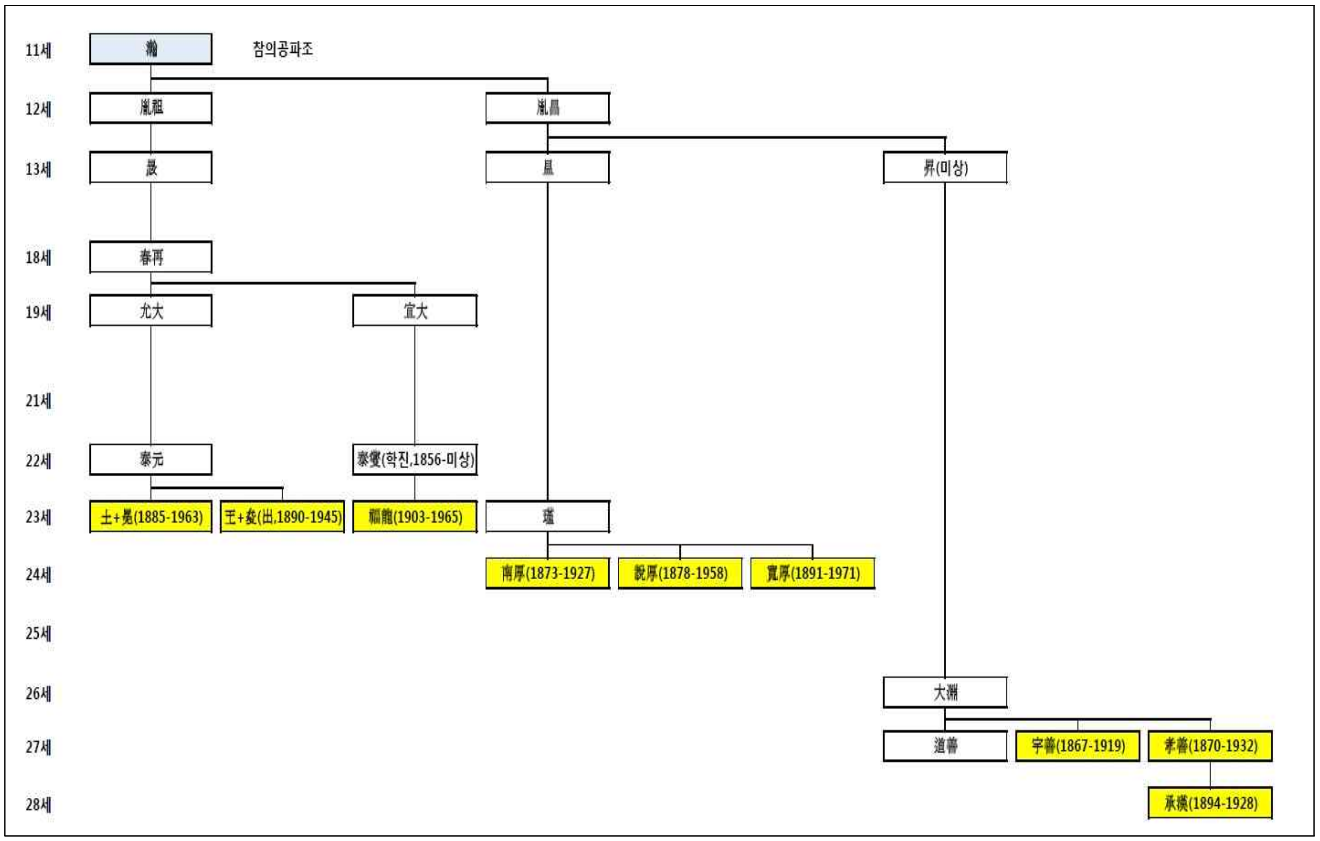
일제는 송산·서신·마도면 일대의 20개 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들어가 17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2명을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가운데 면서기였던 홍면옥의 동생 홍준옥을 비롯하여 홍면옥의 고모부인 왕광연, 홍복용, 홍남후, 홍열후, 홍관후, 홍효선, 홍명선, 홍승한, 홍태근, 홍문선 등은 홍면옥이 총에 맞자 앞장서 노구찌(野口廣三)를 처단하였다. 현재 송산지역 3·1운동 관련 서훈자 28명 중 11명이 남양홍씨 참의공파로 분류된다. 비서훈자까지 합치면 송산지역 3.1운동가 중 남양홍씨 참의공파가 차지하는 숫자는 상당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산면 3.1운동 독립유공자 현황>

번호	이름	이명	순국	지역			훈격
				출생	본적	주소	
1	김교창(金敎昌)			경기 강화	경기 강화	송산 사강	애국장(1990)
2	김도정(金度貞)			음덕 온고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대통령표창(1992)
3	김명제(金命濟)	金道鉉,金明濟	○	마도 해문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1990)
4	김성실(金成實)			마도 해문	송산 사강	송산 사강	대통령표창(2007)
5	김용준(金容俊)	金用俊		송산 사강	송산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1990)
6	문상익(文相翊)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독립장(1977)
7	민용운(閔用云)	閔龍雲,閔龍云		경성 청파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1990)
8	박영호(朴永鎬)	朴春興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1990)
9	안순원(安順元)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1991)
10	오광득(吳光得)	吳景源,吳京雲		경성 종로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2004)
11	왕광연(王光演)	王國臣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독립장(1977)
12	이경집(李敬集)	李正執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대통령표창(2007)
13	이규선(李奎善)	李貴善	○	송산 중송	송산 중송	송산 중송	독립장(1968)
14	이윤식(李潤植)	李惜春,李允植		수원 남창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1995)
15	임팔룡(林八龍)	林龍甫	○	충청도, 경상도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2013)
16	정군필(鄭君弼)	鄭元鎔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1990)
17	차경현(車敬炫)	車萬澤		시흥 노량진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2011)
18	최춘보(崔春甫)			안성 (충남 음죽)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2009)
19	홍관후(洪寬厚)	洪在範		송산 삼존	송산 삼존	서울 마포	애국장(1990)
20	홍남후(洪南厚)			송산 삼존	송산 삼존	송산 삼존	애국장(1990)
21	홍대우(洪大宇)		○	서신 전곡	서신 신곡	서신 신곡	애국장(2005)
22	홍명선(洪明善)	洪明先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1990)
23	홍문선(洪文善)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2016)
23	홍복용(洪福龍)	金奉龍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대통령표창(2015)
24	홍승한(洪承漢)	洪聖漢,홍성택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건국포장(2006)
25	홍우선(洪宇善)		○	화성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1991)
26	홍준옥(洪竣玉)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독립장(1977)
27	홍태근(洪泰根)	洪泰建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대통령표창(2002)
28	홍효선(洪孝善)		○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송산 사강	애국장(1991)

※ 화성지역 독립운통콘텐츠개발사업(2013년~2015년)의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함.

<송산면 사강리 남양홍씨 참의공파 가계>



※ 노란색(음영)은 송산지역3.1운동 참여자

위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송산지역 독립운동가 홍면옥을 비롯한 다수의 인물들이 남양홍씨 참의공파 문중에서 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송산면일대에는 남양홍씨 참의공파를 비롯하여 정효공파, 대호군파가 세거하고 있었는데 유독 참의공파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대거 참여한 사실이 주목된다. 사업과정 중에 발굴 서훈된 홍복용과 홍문선도 남양홍씨 참의공파 인물이다. 향후 추가적으로 발굴 서훈가능성이 있는 인물까지 감안한다면 홍면옥을 비롯한 다수의 인물들이 혈연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위관계자들의 중첩된 인적관계망은 사전에 시위에 대한 공론의 형성과 시위대를 조직하고 추동해 내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송산지역 3·1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의 주도자이자 이 지역의 남양홍씨 참의공파의 어른인 홍면옥이 지역에서 갖는 지위와 영향력, 집성촌이 갖는 강고한 위계적 질서, 혈연적 공동체 의식 등이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문중가의 좌장격인 홍면옥이 갖고 있었던 강고한 성품과 투철한 민족의식 등은 문중내의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126]

126) 지금도 송산에서는 홍면옥에 대한 일화가 영웅담처럼 전해지고 있다. 8·15해방이 되자 홍면옥은 괘짝에서 손수 그린 태극기를 꺼내어 제자들에게 그리게 한 후 제자들과 함께 사강시장에 나가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홍면옥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다고 한다. 홍면옥의 아들 홍진후가 애국가를 불러서 그때 우리나라 애국가가 무엇인지 처음 알았다는 주민들도 있

현재까지도 많은 지역민들이 홍면옥을 사심이 없는 민족주의자로 기억하고 있다. 어깨에 총상을 입고도 일본인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고 신문 과정에서 조선의 독립을 당당히 외쳤던 모습, 출옥이후 대교서당의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가르치고 태극기를 그리게 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교육방식, 자신의 환갑잔치에 온 일본 순사를 면전 박대하여 내쫓아 버렸던 일화 등에서 왜 마을 주민들이 "홍면옥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동네는 친일파가 없었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같이 홍면옥을 위대한 스승으로, 진정한 독립투사로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127]

② 발안과 우정·장안지역 3.1운동

1919년 3월 31일 발안시장에서 1,000여명의 군중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128] 시위대는 일본인가옥에 투석하고 일본인소학교에 불을 지르며 만세를 고창하였다.[129] 진압하는 일본순사들에 의해 시위대의 이정근과 그의 제자 김경태가 사망했다.[130]

하지만 시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산상에서 횃불을 놓고 만세를 부르는 등 시위를 이어나갔다. 산상횃불시위는 발안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다.[131] 발안에 거주하는 일본인 43명은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 지역 일본인 거류민 단장 사사카(佐坂)가 간척사업을 벌이던 30리 밖의 삼계리로 피신하였고 발안에 거주하는 일본인 남자 9명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일본 병사 4명과 철야 경계를 하게 하였다. 삼계리로 피신하였던 여성과 아이들은 증원군이 파견된 4월 5일이 되어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발안장에서의 3.1운동 직후인 4월 3일 우정면과 장안면은 연합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는 면사무소 2곳과 주재소 1곳이 파괴되고 순사가 타살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우정면 주곡리의 차희식, 장소진, 장제덕은 장안면의 석포리로 건너가 연안차씨의 차병한, 차병혁, 차경규와 규합하였다. 시위대는 수촌리를 거쳐 장안면사무소가 있는 어은리에 도착하였다. 시위대는 장안면사무소를 파괴 방화하고 쌍봉산으로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며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쌍봉산 밑 조암리 마을로 내려온 시위대는 화산리 소

었다. 홍광유 증언(2013.5.23. 자택에서).

127) 해방이후 홍면옥은 육일리에서 대교서당을 운영하며 생활하였는데 그의 제자들은 지금도 홍면옥을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사심이 없는 애국자로 기억하고 있다. 육일리 거주 김광성의 형은 홍면옥의 제자인데 벽에다 태극기를 붙여 놓고 벽지로 가려놓았다고 한다. 홍면옥의 제자인 공호식에 의하면 홍면옥은 너무 엄격하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한다. 김광성 증언(2014.6.12. 자택에서) ; 공호식 증언(2014.6.19. 자택에서).

128) 발안3.1운동이 일어난 날은 발안장날이었다. 발안장은 5일장이다. 발안장날 일어난 시위는 공적조서를 포함해 여러 문헌에 4월 5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발안 장날 순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근의 순국날짜는 3월 31일이다. 하지만 공훈록에는 '1919년 4월 5일 京畿水原郡 鄕南面 發安장날에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日警과 투석전을 벌이고 日警 巡査部長을 타살하는 등 활동하다가 敵警이 무자비한 총검으로 亂刺하여 斬殺 殉國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129) 강덕상, 『3.1운동(2)』, 1977, 310쪽

130) 탄운 이정근 의사 기념사업회, 『탄운 이정근 의사』, 1971 참조

131) 日本 NAK, 삼일운동사, 1990.

재의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하고 한각리를 거쳐 화수주재소를 포위, 공격하였다. 주재소에 있던 가와바다(川端豊太郎) 순사가 총을 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가와바다(川端豊太郎)의 총격에 시위대가 쓰러졌다.[132] 시위대는 도망가는 가와바다(川端豊太郎)를 잡아 몽둥이와 돌멩이로 타살하고 화수주재소를 방화하였다.

우정·장안면의 3.1운동은 공세적이고 격렬한 화성지역 3.1운동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2,000여명의 시위대는 두 개의 면에 해당하는 각 마을을 돌며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파괴하고 순사를 타살하였다. 이 지역의 3·1운동은 장안면 석포리와 수촌리, 우정면 주곡리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였다.

우정·장안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로 차병한, 차병혁, 차희식, 차경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장안면 석포리에 세거하고 있던 연안차씨 강렬공파의 후손들이다.[133] 주곡리에 살고 있던 차희식은 연안차씨 강렬공파의 후손으로 석포리에 거주하다가 부인의 친정인 주곡리로 거주지를 옮겨 살았다. 차희식은 주곡리의 장소진, 장제덕 등 주곡리 주민들과 함께 석포리로 넘어가 석포리 시위대와 합류하였다. 이들이 굳이 화수주재소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석포리 시위대와 합류한 것은 시위대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석포리 차씨 일가들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134] 이들은 장안면사무소를 습격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장안면장 김현묵에게 태극기를 들게 하고 강제로 만세를 부르게 한 인물들로 선대에 양자를 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었다. [135]

또한 석포리의 윤영선(1894~1967)[136]은 차경규의 대고모부의 아들이다. 또한 이들의 집

132)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에는 이경백·이덕명·송성호·송종혁·송우호·노선일·김석여가 화수리에서 순국한 것으로, 우정·장안 지역의 「신문조서에는 3명이 순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권 290쪽). 2014년 현지조사 결과 화수리에서는 송성호·송종혁만 찾을 수 있었고, 나머지 인물들은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에 기록된 이경백과 이덕명은 동일인 또는 동명이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002년 애국장이 추서된 이경백의 공적조서(공훈전자사료관)에는 이경백의 이명이 '이덕명'이라고 하였으나 정작 『공훈록』에는 이명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신문조서」(『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나 「판결문」 등의 기록에서 굳이 이들을 동일인이라고 판정할 근거는 없다. 앞으로 이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송기호와 송찬호 등이 고문여독으로 사망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에 기재된 송우호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송기호·송찬호 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제적부」 열람이 제한된 상태여서 「족보」를 통해서 사실 확인 중에 있다. 김선진은 기림골의 김정식과 거묵골의 이경백, 사곡리의 김현모가 가와바다(川端豊太郎)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중 이경백의 순국사실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김정식과 김현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33) 장안면 석포리는 연안차씨 강렬공파의 집성촌으로 50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세거하고 있다. 화성출신 독립운동가 차병혁(1889~1967)과 차병한(1885~1933)은 연안차씨 강렬공파의 38세손이며, 차봉구(호적명 차경규, 1898~1972)는 39세손, 차희식은 37세손이다.

134)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권, 1994, 163~1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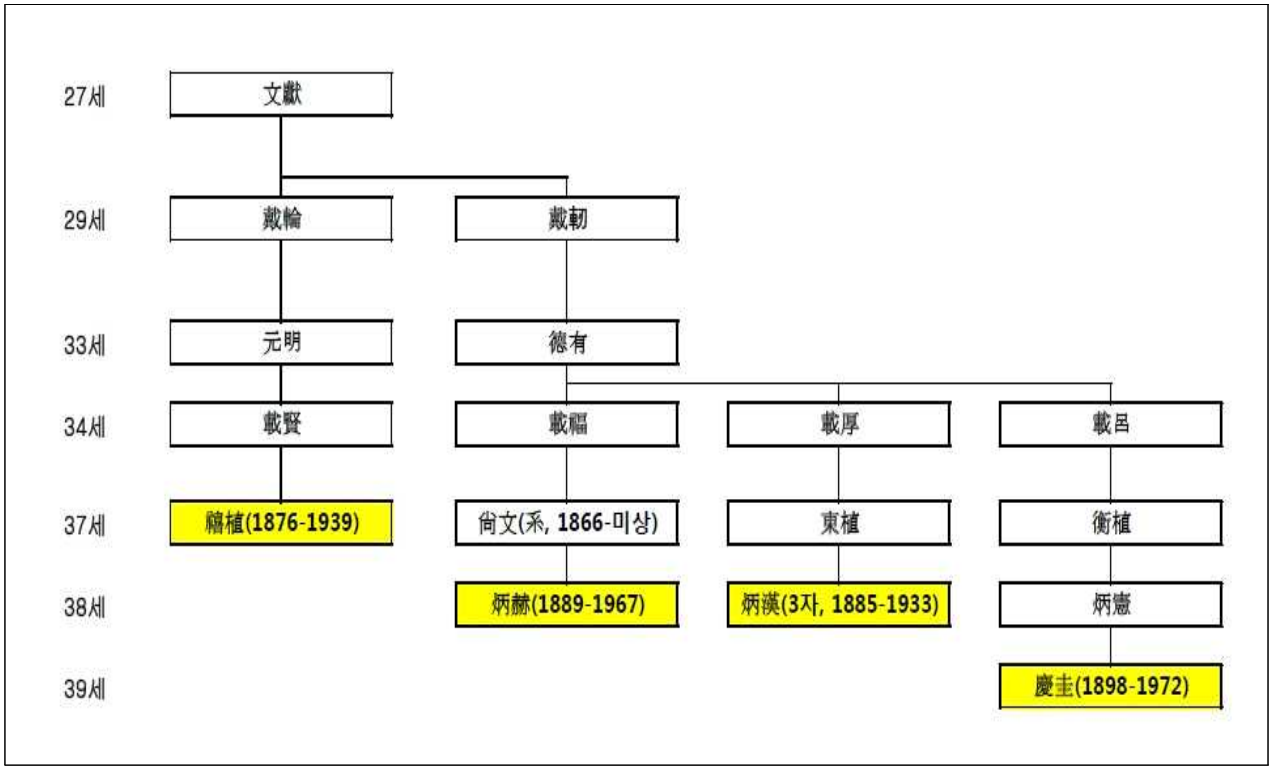
135) 이들의 관계는 33세손인 차덕유(1737~1823)로 부터 시작된다. 차덕유는 차재복(1755~1814), 차재후(1760~1815), 차재려(1767~1819) 세 아들을 두었다. 이들은 각각 차병혁·차병한의 조부, 차경규의 종조부이다. 독립운동가 차병혁·차병한은 연안차씨 강렬공파의 38세손, 차봉구(차경규)는 39세손, 차경규의 부친 차병헌이 38세손으로 차병혁·차병한과 같은 항렬이다. 차병혁의 부친은 차상문(1866~미상)인데 차상문의 생부는 차의원(1837~1893)이다. 차의원은 차민식과 차상문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중 둘째아들인 차상문을 차순원(1824~1849)에게 양자로 보냈다. 차의원은 차경규의 종증조부(증조할아버지의 형제)이다. 또한 차경규의 종고조부인 차석정은 차재후의 양자로 보내져 차병한의 증조부가 된다. 차석정은 아들 차예원을 두었으나 차예원이 아들이 없자 차경규의 종조부가 되는 차창식을 양자로 들인다. 결국 차경규의 종조부인 차창식은 차병한의 큰아버지가 된다.

136) 윤영선은 장안면 석포리 출신으로 장안·우정 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은 서로 이웃하고 있어서 선대부터 내려오던 혈연적 유대감과 지역적 관계망은 구장 차병한을 위시하여 차씨 일가들이 4월 3일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수의 지역민들이 석포리 거주 연안차씨들의 강한 제족성(諸族性)을 언급하였다. 이런 강한 제족성은 3·1운동 과정에서 단결된 응집력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장안·우정 지역의 3·1운동을 이끈 차병한, 차병혁, 차희식, 차경규 등의 인적관계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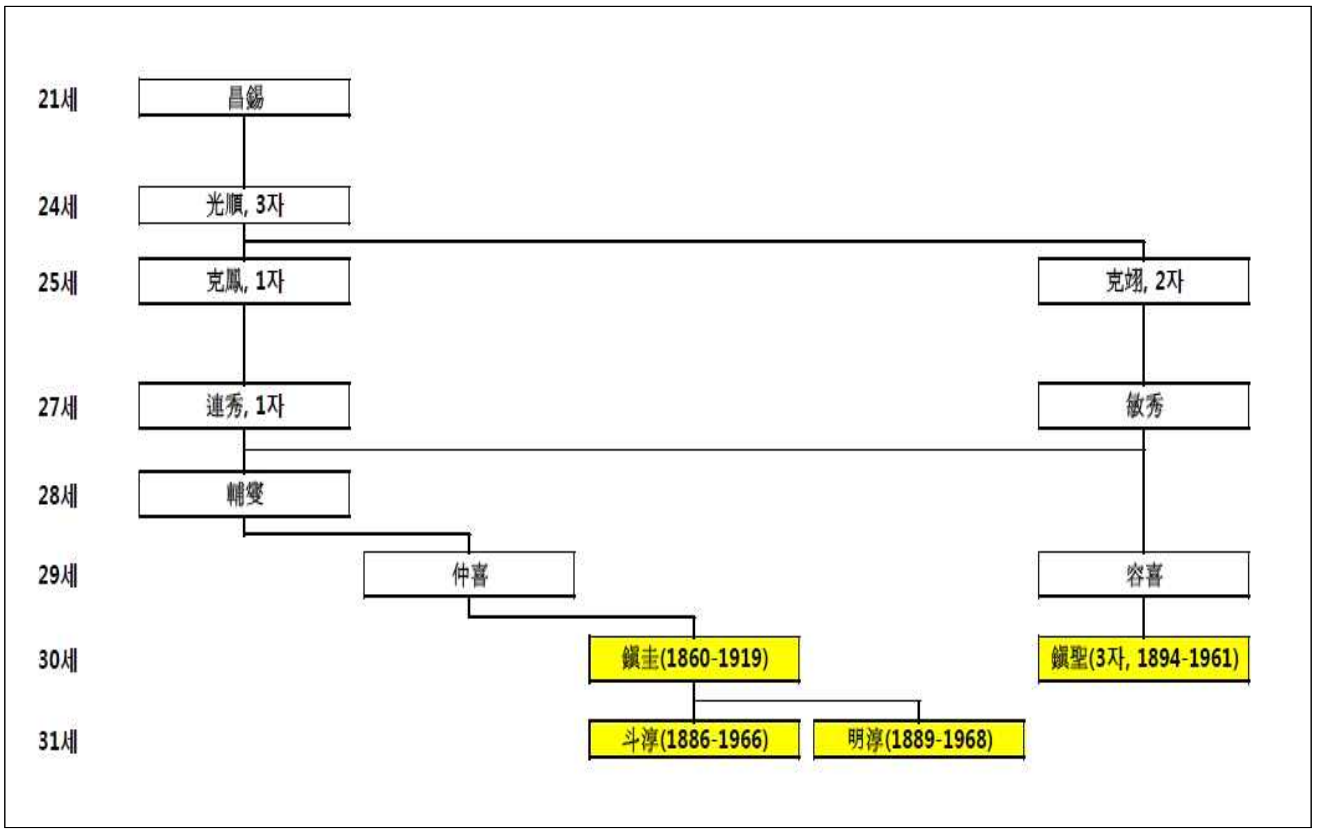
<석포리 연안차씨 강렬공파 가계도>



이러한 제족성은 화성지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정읍 한각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각리는 한각리 경주최씨 계림군파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마을에는 천도교인 여러 호가 살고 있었으며, 일본인 순사의 횡포가 있을 때마다 그 잘잘못을 따지는 등 항일의식이 강한 마을이었다. 4월 2일 한각리에서는 최진규·최진성·최진승 등이 마을 뒷산에 올라 저녁 7시를 기해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으며, 4월 3일에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 광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중마을에서 건너오는 많은 시위대와 합세하였다. 한각리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전열을 가다듬고 2군으로 나누어 화수주재소를 포위 압박해 들어갔다. 화수주재소로 넘어간 시위대는 주재소를 완전히 파괴하는 한편 일본인 순사 가와바다(川端豊太郎)를 타살하였다.

이날 한각리 주민들은 화수주재소를 습격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만세를 부르면서 부락으로 돌아왔다. 한각리 3·1운동 주요 참여자인 최진성·최진승·최진규·최두순·최명순·최상헌·최정순·최봉섭 등의 인적 관계망은 다음과 같다.

<한각리 경주최씨 계림군파 가계도>



이처럼 화성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서로 친인척관계로 중첩되어 있다. 혈연을 바탕으로 한 화성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의 인적 관계망은 이 지역에서 3·1운동이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마을에서 누가 3·1운동을 주도하는가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참여정도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오랜 기간 동일한 지역에서 한마을을 이루며 형성되어 왔던 향촌사회의 집성촌이 갖고 있었던 지역적 혈연적 관계의 중첩은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화성3.1운동의 작동 기제가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지역민들의 인적구성이나 관계망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적부」 등 관련 자료의 접근과 활용을 통해 이들의 인적·지역적 관계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마을에서 차지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

2) 보복과 학살

이러한 화성지역 3·1운동의 격렬하고 공세적인 저항은 폭압적인 탄압을 불러왔다. 일제는 3·1운동에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가하였다. 3월 31일 발안시위 직후 경기도장관과 수원군수는 군대 지원을 요청하였고 경성헌병대장 겸 경기도 경무부장 시오자와(鹽澤義夫) 헌병대좌는 경기도 경시 하세베(長谷部巖) 대위를 중심으로 헌병과 경찰 혼성부대를 편성해 시위가 일어난 화성지역에 파견하였다. 4월 3일 안성에서 주도자를 검거, 서울로 압송하고 그 즉시 바로 화성에 내려와 4월 6일까지 발안리, 수촌리, 화수리 일대를 방화하고 주도자 검거에 나섰다.[137]

4월 9일에는 경성헌병대 부관 헌병특무조장 츠무라(津村) 이하 헌병, 보병, 경찰 등 모두 32명으로 구성된 2차 검거반을 파견하여 대규모 검거를 시작하였다. 4월 10일부터 시작된 검거는 11일 오후 까지 발안과 화수리를 거쳐 장안면과 우정면의 25개 마을을 포위하고 204명 검거 하였다. 12일에는 남양으로 이동하여 그날 오후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팔탄면 하저리 부근 4개 마을을 습격한 후, 송산으로 넘어가 4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강을 중심으로 인근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의 20개 마을을 수색하여 175명을 검거하고 1,202명에게 서약서를 받고 훈방조치 하였다.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차 검거는 처음부터 보복의 성격이 강해 검거된 주민만 8백여 명이 넘었으며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였다. 검거반이 파견된 화수리, 사강리 일대는 주재소와 면사무소가 파괴되고, 일본인 순사가 살해되는 등 3.1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2차 검거반의 작전이 끝나갈 즈음인 4월 13일 보병 79연대 아리타(有田俊夫) 중위가 지휘하는 11명의 보병이 발안경비를 위해 천안에서 발안으로 이동하였다. 1차, 2차 검거반의 검거망이 미치지 않은 제암리와 고주리의 3.1운동 주도세력의 박멸을 위한 것이었다. 4월 15일 순사보 조희창과 일본인 사사카(佐坂)를 앞세워 제암리에 도착한 후, 마을의 '성인남자는 다 교회에 모여라'고 명령하였다.

미리 명단을 파악해서 오지 않은 사람은 가서 불러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교회 문을 잠근 후 총격 한 후, 교회와 마을 전체에 방화가 이루어졌다. 아리타(有田俊夫)는 제암리에서 학살을 마친 뒤 팔탄면 고주리로 넘어가 독립운동가 김흥렬과 그의 가족을 학살하고 3일 동안 불에 태웠다. 일제의 진압과 보복으로 소실호수 328호, 사망자 45명, 부상자 17명에 이를 정도로 화성지역의 피해 상황은 심각하였다.[138]

---

137) 일본육군성,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7』, 1920(공훈전자사료관), 참조

138)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 東京:みすず書房,국학자료원, 1967, 312~318쪽을 재구성함. 이것은 일본측의 문서에 기록된 것으로 마을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 측의 문서에 기록된 것보다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주리의 사망자는 6명인데 4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검거되어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거나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했던 피해자 집계는 제대로 이루어

<화성지역 3·1운동의 피해 상황>

면	리	소실 호수	사망자	부상자	검거 인원
우정면	화수리	22	3		204
	조암리	11	1	1	
	한각리	1	1		
	화산리	1	2		
장안	수촌리	33	1	4	
	어은리	12	1		
	독정리	2	1	1	
	사곡리	1	1		
	석포리	2			
	장안리		2		
팔탄	기천리	1		1	
	고주리	1	4		
	노하리	1	1		
	가재리		1	5	
	하저리		1	1	
	창곡리	1	1	1	
향남	제암리	28	23		63
	발안리			5	
성호	오산리			2	
송산	사강리	81		4	175
	육일리	30			
	봉가리	47	1	1	
	삼존리	40			
	중송리	1			
	마산리	1		1	
서신	전곡리	2	1		
	상안리	2			
마도	해문리	7		2	
총 계		**328**	**46**	**24**	**442**

3)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4월 15일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은 3.1운동 기간 중 일제가 저지른 사건 중의 하나로 재한 공관 및 선교사들에 의해 알려지면서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선교사 노블은 미국 총영사를 방문하여 '선교사가 잡혀가고 교회당이 소각되는데도 미국관헌들은 간과하고 있다'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미영사관에서는 진상 파악에 나서 4월 16일 커티스, 테일러, 언더우드를 수촌리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목적지 수촌리에 가던 중 우연히 제암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현장을 방문할

지지 않았다.

수 있었다. 커티스 일행은 목격한 내용을 정리하여 버그홀쯔 미총영사에게 보고하였다. 커티스는 보고서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문서를 첨부하였다. 첨부한 문서는 '제암리에서 37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교회와 마을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139] 버그홀쯔 미총영사는 이 사실을 미국무부에 보고하였다.

제암리 소식을 접한 재한공관 및 선교사들은 연이어 제암리를 방문하였다. 스코필드가 4월 18일, 영국영사 로이즈를 비롯하여 노블 등의 선교사들이 4월 19일 각각 현장을 방문하였다. 프랑스의 영사관에서도 영미 영사관의 보고서들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상세히 제암리 사건을 자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통해 각국의 정부는 일제의 만행을 알고 있었다.[140] 그러나 철저히 인도적 차원, 종교적 문제로 접근하였다. 무엇보다 커티스가 덧붙인 '교회에서 기독교인 37명 학살'이라는 제목하의 언더우드의 조사 보고는 제암리 사건을 독립운동 보다는 종교탄압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에 큰 기여를 한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의 '한국의 상황'도 한국의 정치적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당시 재한공관을 비롯한 서구인들은 제암리 사건을 종교적 탄압, 인도적 문제로만 접근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제암리 사건은 3.1운동 시기 다른 어떤 사건보다 정치적 목적이 강한 사건이다. 화성의 3.1운동은 서쪽의 해안가 송산면 일대에서 부터 시작하여 우정·장안면을 거쳐 내륙방면으로 타고 번져나가는 상황이었다. 발안 서쪽에 해당하는 시위에서 순사 2명이 타살 당하는가 하면 발안 인근 80여개의 산상에서의 횃불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일본인 가옥이 파괴되고 일본인소학교가 방화되었으며 면사무소가 공격당하는 등 시위는 점차 과격한 양상을 보였다. 발안장에서는 일본인을 살육하고 시장을 괴멸할 것이라는 소문이 횡횡하였다. 발안 거주 일본인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30리 밖 삼계리로 피신하는 등 치안 상황은 극도로 불안하였다.[141]

이러한 치안상황을 둘러본 아리타는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주모자인 예수교도 및 천도교도를 소멸하고 그 근거 소굴로 인정되는 곳을 뒤엎어 화근을 끊는 것이 임무수행상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리타는 평소에 3.1운동은 우연한 계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독립되기를 희망하는 자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통의 수단으로는 제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때문에 '3.1운동을 근절하려면 주모자를 찾아 박멸하고 그 소굴을 뒤엎음으로써 잘못된 희망을 근절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리타의 이런 판단의 근거는 개인 혼자의 일탈행위가 아니었다.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宇都宮太郎)은 화근을 뿌리째 뽑을 것을 것과[142] 군

139) 김승태,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참조
140) Report of Mr. Curtice to Mr.Bergholz, April 21, 1919 ;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Internal Affairs of Korea, 1910-29, Roll 3.
141) 강덕상, 『현대사자료총서(조선)』 25, 東京:みすず書房,1967, 342쪽

대의 신중함이 지나치면 도리어 만세운동이 增長될 우려가 있으니 강압수단을 써서라도 '복종시켜 종식'하도록 지시하였다.[143] 또한 경무부장 시오자와(鹽澤義夫) 헌병대좌는 ≪大阪每日新聞≫ 인터뷰에서 '파리채로는 감당되지 않는다. 단호한 처치만 있을 뿐'이라며 한 치의 용서도 없이 최후의 수단을 취할 것을 밝혔다. 동시에 시위 군중에 대한 일제 군경의 '적절한' 병기 사용을 지시[144]등 아리타의 행위는 이러한 지시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렇듯 제암·고주리 학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주모자 검거와 관련자 색출, 그리고 항쟁이 일어났던 주요 마을에 대한 보복이라는 일련의 시나리오 속에서 치밀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면사무소, 주재소, 일본인 학교에 대한 공격와 일본인 순사 처단를 처단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는 대대적인 보복을 가하였다. 진압방식도 주모자를 색출하여 검거하기 보다는 시위의 주도세력 근거지에 대한 박멸을 목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화성지역 3.1운동에 대한 진압과정의 최고의 정점에 제암·고주리가 해당한다고 하겠다.

3. 독립운동기념사업

1)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사업의 현황과 활용

화성지역의 3·1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와 강경진압에 맞서 싸운 공세적 저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화성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중요성과 특수성은 일찍부터 주목받았으며,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을 비롯해 이 지역 독립운동과 관련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화성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조사·수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화성시는 많은 독립운동 학술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왔음에도 기초자료라 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보니 가용할 수 있는 자료가 희박하였다. 예를 들어 각종 발간물을 통해 면담한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녹취록이나 음성파일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거나 독립운동 관련 재판자료 등 1차 사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화성시가 2013년부터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사업'은 화성지역 민족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인물 및 사건을 비롯하여 그 배경이 되는 지역적·사회경제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구하여 우리나라 민족·항일독립운동사에서 화성지역이 갖는 역사성

142)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7』, 「訓示ノ件報告」 朝憲密 第108號, 大正8年5月12日,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내훈乙 제81호', (조선헌병대사령관 → 육군대신).
143)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7』, 「騷擾事件ニ關スル狀況(3月26日~4月5日)」 朝特報 第9號, 大正8年 4月 7日(조선군참모부 → 육군대신 외).
144) 이양희, 「일본군의 3.1운동 탄압과 조선통치방안」, 『한국근현대사연구』 65, 2013, 120쪽.

과 지역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방대하다. 수집된 자료를 살펴보면 3·1운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인물, 구술, 유허지 조사 등으로 분류된다.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현장조사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교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조사수집 방식은 매우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지만 지역사의 겨우, 문헌과 현장이 각기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방법이었다. 사업 초반기에는 중앙기관과 관내기관, 개인소장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었고 점차적으로 지역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의 수집현황>

조사 내용	주요 자료	구분							
		권	종	건	명	지역	유허지	시간(분)	면
행정구역조사	국내(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규장각·대학도서관) 및 일본 등에 소장된 지방행정구역 편제 관련 도서·문건 및 읍지류·지지류 등	×	×	27	×			×	9,208
문헌조사	국가기관(국가보훈처·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장 및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 독립운동 관련 공훈록·신문조서, 서훈자료·판결문, 신상기록카드, 제암리 학살사건 관련 자료, 각종 신문자료 등	39	11	12,213				×	123,495
지역자료조사	국가기관(국가기록원·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및 화성시(문서고·자료관시스템 이지존·읍면동 사무소) 등에 소장된 토지조사부, 구적부, 訴狀類 및 각종 문건 등	263	×	2,353	×			×	190,317
마을기초조사					58	25(마을)			
유허지조사							182(유허지) 17(만세길)		
자료해제	1차년도(2013년)~2차년도(2014년) 조사·수집된 성과 중 각 분야의 주요 자료 해제 의뢰, 원고 집필			6					1,500
현장기초조사	3읍·10면·3동 사무소 방문, 유적지 현황 파악, 수십 명의 제보자 조사 및 면담, 일지작성 등	공통			48			3,612	1,623
구술조사	독립운동가 후손 및 시 관계자, 각종 기념사업회 관계자 면담·녹취, 개인소장 자료 수집 등								
합 계	**302권, 11종, 14,593건, 32만 6,143면, 106명(면담·구술)**								

2) 화성지역 독립운동가 현황과 발굴

수집된 자료는 1차 문헌자료의 분석과 지역조사를 병행한 구술조사가 접목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독립운동가 발굴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수집된 인물자료는『공훈록』및「공적조서」,「3·1운동시피살자명부」,「신상기록카드」,「판결문」,『독립운동사자료집』5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1,『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9·20·21·22:「(피의자)신문조서」·「검증조서」·「공판시말서」·「수색조서」·「청취서」·「(증인)신문조서」,『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별권1~9,『화성출신독립운동가』,『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의병운동 I 』등이다. [145] 이것을 먼저 인물별로 분류하고 계열별, 지역별로 분류하였다. 화성지역 독립운동유공자는 총 120명으로 계열별로는 의병 7명, 3.1운동 99명, 국내항일 10명, 의열 1명, 해외 3 명이다.

이와 같이 인물별 기초데이터 구축은 독립운동가 발굴에 적극 반영되었으며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에 활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연방, 송성호, 홍복용, 홍문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로 재판 관련 자료, 구술자료, 개인소장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추가행적이 발견되어 새롭게 발굴 서훈된 인물이다.

① 홍복용

홍복용은 송산지역의 3.1운동에 참가한 인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룬 인물이다.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에는 홍복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홍복용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서훈 추진에 들어갔으나 홍복용이란 인물은 존재하지 않아 제적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제적부상 송산면의 홍복용이라는 인물은 없었던 것이다. 다시 인물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다시 거쳤고 그 과정에서 홍복용의 형이 홍복흥임을 알 수 있었다.[146] 홍복흥의 제적부를 확인하여 지역조사를 통해 홍복흥, 홍복용에 관해 추적한 결과 홍복용은 김봉용과 동일인물이며 홍복흥과 이복형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가 안 돼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은 MF필름으로도 소장되어 있어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MF 필름을 확인한 결과 MF 필름상의 소행조서에는 홍복용과 김봉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영인본에는 누락된 자료가 상당하여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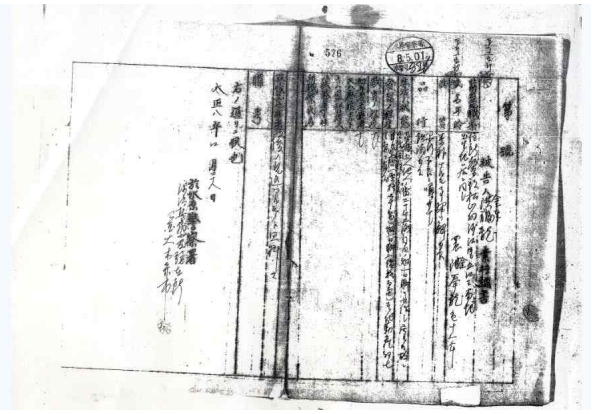
145) 강은정,「독립운동 관련 인물조사 및 자료수집」,『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 개발의 현황과 과제』, 2015, 50쪽.
146) 국사편찬위원회,『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22, 1995. 홍복흥 신문조서 참조
147) 2017년 화성시는 화성지역에 해당하는 MF 07312~MF 07318, MF 07527~MF 07530을 수집하여 탈초를 완료하였다.총 MF 11롤, 5,828면에 해당한다.

이 름	이 명	생몰년	출생 본적 주소	신분 직업	관련 자료
홍복용 (洪福龍)	金奉龍 (본명) 三井福龍	1903.5.10 ~ 1965.2.12	송산 사강 543	常民 농업	판결문:홍면 등 32인 (경성지방법원, 920.4.7)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자료집』5 · 국사편찬위원회,『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1,22 · 「신상기록카드」(원본이미지) · 소행조서(원본 M/F) · 민적부(원본 M/F) · 매일신보(1920.4.8.) · 제적등본(김봉용, 홍복흥)

신문(迅問) 조서(홍복용은 홍복흥의 동생)

김봉용=홍복용

신상 기록 카드(홍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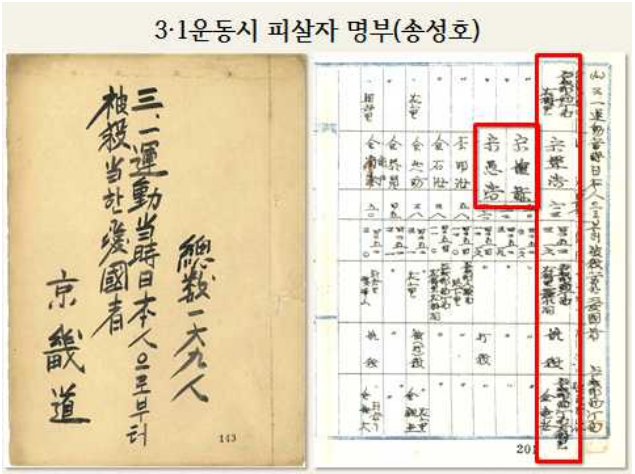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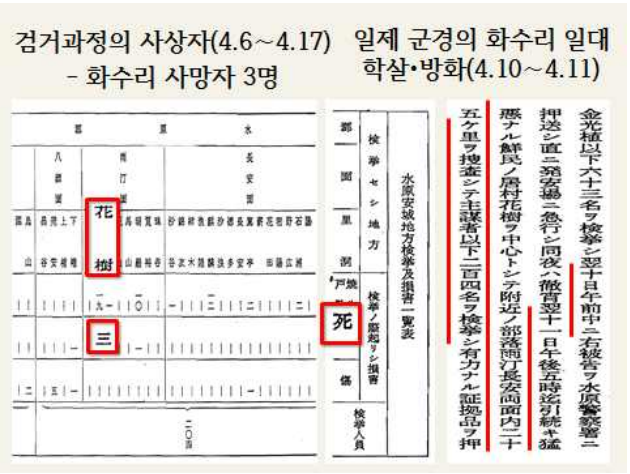
② 송성호

송성호는 화성 우정읍 화수리에서 1856년에 출생한 인물이다. 1919년 4월 3일 장안·우정면 3·1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가 자행한 화수리 지역 학살 과정에서 순국하였다. 송성호에 대한 행적은 독립운동 관련 지역조사를 통해 구술증언으로 수집되었다. 그러나 문헌자료에서는 관련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14년 정부에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의 공개

를 통해 송성호의 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성호의 독립운동과 순국사실은 후손의 증언, 『족보』및 장남(송○칠)의 「제적등본」,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굴됨으로써 서훈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5년 8월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이 름	이명	생몰년	출생 본적 주소	신분 직업	관련 자료
송성호 (宋聲浩)	世振 (字)	① 1856~1919.3.12(양력 4.12) ② 1919.3.16(양력 4.16) 총살 ③ 송성호 사망으로 장남 송○칠 호주 승계 1919.3.11 (양력 4.11)	우정면 화수리	농업	『여산송씨지신공파보』 『3·1운동시피살자명부』 (경기도) 「제적등본(송○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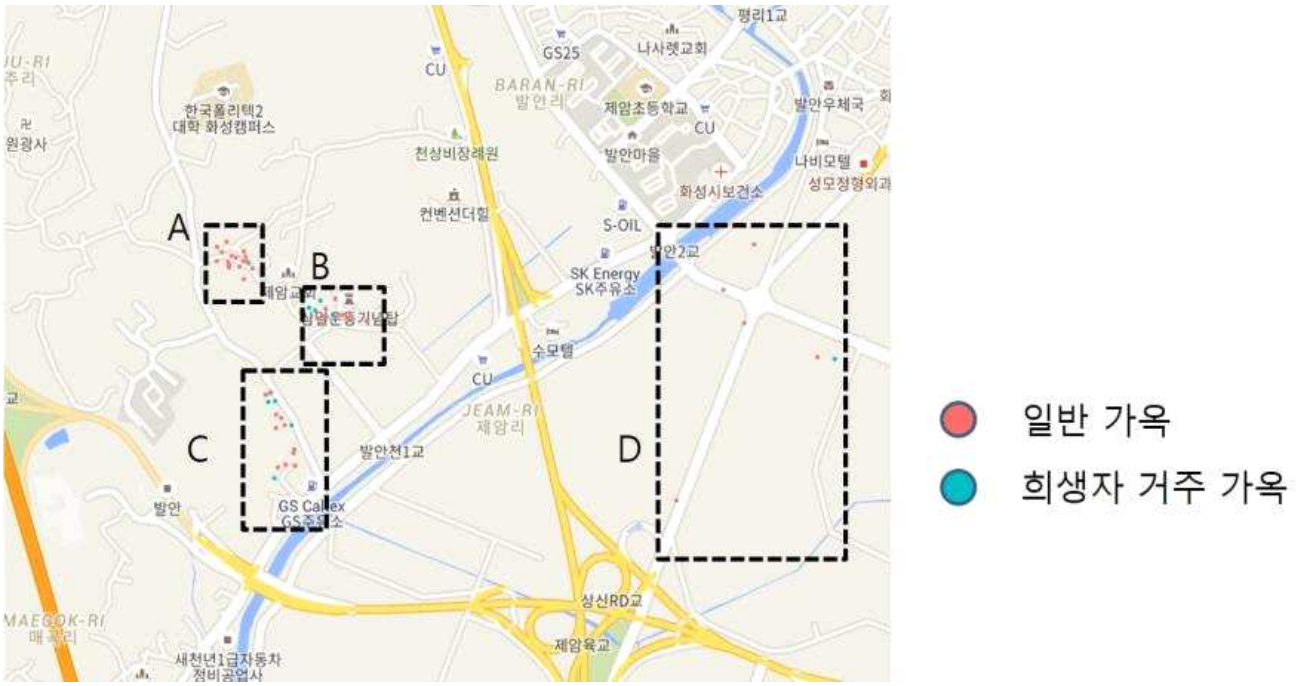
4. 맺음말

2017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화성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학술세미나, 100주년 특별전, 각종 발간사업과 기념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이다.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은 2001년 건립되었다. 그동안 기념관의 노후화와 협소화로 인해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건립 장소는 기존의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지를 포함, 확장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1982년 제암리는 학살 당하신 순국열사들의 유해가 발굴되면서 23인 합장 묘역이 조성되면서 학살현장이 사적 299호로 지정되었다. 부지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제암리 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성과 사적지라는 역사적 가치가 고려되어 기존의 제암리 유적지를 확대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여기에는 제암리, 고주리 일대의 유허지를 포함하는 공원 조성계획도 포함되었다. 제암리, 고주리는 학살 현장 뿐 만 아니라 만세길과 독립운동가 집터, 학살현장 사적 299호, 김흥렬 참살터, 23인 묘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독립운동 관련 지점들을 공원조성사업에 포함시켜 현장성을 더욱 강화하여 기념관의 운영과 접목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암리 일대 독립운동가 집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단지 100주년이 되는 한해만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단지 그날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과 행사의 구분이 필요하다. 독립운동 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 정 토 론 ①

성주현, ‘경기남부지역 3·1운동의 전개와 특성’에 대한 토론

지정토론자 / 조 성 운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연구원

성주현, ‘경기남부지역 3·1운동의 전개와 특성’에 대한 토론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각지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3·1운동에 대한 기간의 연구사의 정리와 자료의 정리 및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3·1운동이 한국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타당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본고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경기 남부지역의 3·1운동의 전개와 특성을 파악한 점에서 학술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서술되었다. 하나는 ‘2. 경기 남부지역 3·1운동의 전개’이며, 다른 하나는 ‘3. 경기 남부지역 3·1운동의 특성’이다. ‘2. 경기 남부지역 3·1운동의 전개’는 ‘3. 경기 남부지역 3·1운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사로 서술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2. 경기 남부지역 3·1운동의 전개’에서는 수원(화성)지역을 중심으로 서술되었고, 기타 지역에 대한 서술은 소략하다. 이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술 분량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술 상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중심은 ‘3. 경기 남부지역 3·1운동의 특성’ 부분이라 판단된다. 발표자는 여기에서 경기 남부지역 3·1운동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는 운동이 전개된 시기, 둘째는 운동의 주도 계층, 셋째, 운동이 전개되면서 폭력화하였다는 점, 넷째,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발표자가 경기 남부지역 3·1운동의 특성이라 지적한 것들이 경기 남부지역의 3·1운동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여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경기 남부지역 3·1운동의 특징이 아니라 3·1운동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발표자가 살핀 8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들을 유형화해서 분류하는 편이 경기 남부지역 3·1운동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일본 순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수원의 경우와 같이 3·1운동이 보다 격렬하고 폭력화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차이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를 파악한다면 경기 남부지역의 3·1운동의 특징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천도교와 기독교 세력이 이 지역의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이른바 '민족대표 33'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생각할 수도 있다. 발표자는 김세환과 이병헌이 각각 경기 남부와 수원 지역 3·1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이른바 '민족대표'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파악한 기존의 3·1운동사 연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서술에서 아쉬운 점은 경기 남부지역에 3·1운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파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3·1운동 관련 판결문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일신보>를 보고 3·1운동이 발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 지역에서도 이를 일으킬 것을 결심했다는 것과 서울에서 있었던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 이를 일으켰다는 점이 유독 두드러진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경기 남부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른바 '민족대표'의 역할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지 정 토 론 ②

김해규·장연환, ‘평택 3·1운동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토론

지정토론자 / 황 수 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김해규·장연환, '평택 3·1운동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토론

평택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경기남부의 다른 지역인 수원·화성·안성 등에 비해 연구성과가 많지는 않다. 다만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1997년 『평택시3.1독립운동사』와 2004년 『평택시 항일독립운동사』가 단행본으로 발간되었으며, 학술대회로는 2009년 3.1운동 90주년 기념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와 2012년 「새로 쓰는 평택 3.1운동 학술회의」 등을 통해 평택의 3.1운동을 부분적으로 조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단발적인 연구에 그쳤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평택 3.1운동 연구는 주로 사건의 나열과 전개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종전의 연구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교통의 변화로 인한 중심지 이동, 근대교육과 종교, 참여계층을 분석하여 평택 3.1운동에 대해 성격과 특징을 도출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1. 국가보훈처에서 2014년 공개한 「3·1운동 당시 일본인으로부터 피살당한 애국자 명부」에 평택지역 피살자는 ▲평택읍 통복리 박사원(33·순국 당시 나이) ▲포승면 희곡리 이영서(47) ▲팽성면 함정리 이인수(39) ▲팽성면 대사리 이기석(20) ▲팽성면 신궁리 김승선(40) ▲팽성면 신궁리 방중삼(35) ▲팽성면 근내리 정우근(25) ▲팽성면 근내리 정세근(34) ▲팽성면 근내리 정덕근(26) ▲팽성면 본정리 이일영(53) ▲죽백리 이양섭(35) ▲죽백리 홍순태(27) ▲죽백리 류영섭(25) 등 13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명부에는 읍·면 단위로 성별·나이·주소·순국일시·순국장소·순국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3명의 평택지역 순국자는 ▲총살 2명 ▲옥사 1명 ▲일본인의 구타에 의한 타살 8명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 순국 1명 ▲체포 후 불명 1명이다. 이중 3.1운동으로 정우근과 정세근은 2014년 8월 포상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평택 3.1운동 연구가 더욱 풍부해 질것으로 보인다.

2. 평택역전은 평택지역에서 가장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 3.1운동이 펼쳐진 곳으로 발제자 역시 평택남부지역 만세운동의 중심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평택역전의 3.1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인 이도상, 목준상, 한영수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의 신분, 직업, 교육수준 뿐만 아니라 이들의 출생지나 혈연관계, 지역에서의 위상, 이후의 활동양상 등을 파악한다면 평택 3.1운동 성격이 잘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3. 평택 3.1운동은 근대도시인 평택역전을 비롯해 종래의 구도심이었던 봉남리, 객사리, 안중리를 비롯해 마을단위로까지 평택 전 지역에서 펼쳐졌으며, 농민부터 관료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평택 3.1운동이 이처럼 높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발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4. 평택지역의 3.1운동은 일제가 광포하다고 표현 할 정도로 격렬하고 적극적이었으며,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등 3.1운동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지역인 화성, 수원, 안성, 천안 등에 비해 평택의 3.1운동은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처럼 평택 3.1운동이 낮은 인지도를 갖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3.1운동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3.1운동은 민족의식의 각성을 일으킨 중요한 사건으로 평택지역에서도 큰 자극이 되어 이후 다양한 민족운동으로 발현된다. 이번 발제를 통해 평택 3.1운동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적으로 어떠한 자극이 되었는지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 정 토 론 ③

김대용, ‘안성 3·1운동의 특징과 기념사업’에 대한 토론

지정토론자 / 홍 원 의
안성시 학예연구사

김대용, ‘안성 3·1운동의 특징과 기념사업’에 대한 토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조명하려는 많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특히 많은 독립운동의 업적을 남긴 경기남부지역을 조망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평택에서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성은 그 중에서도 삼일운동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 ‘안성 3.1운동의 특징과 기념사업’에 대하여 발표를 해주신 김대용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안성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공통되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첫째, 독립운동 유적지 비정 및 내용상의 오류 문제입니다. 발표문에도 쓰여 있듯이 안성 삼일운동을 이야기 할 때 구 안성군청(현 안성1동주민자치센터)을 유적지로 소개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실 구 안성군청은 1928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1919년의 삼일운동을 이곳에서 할 수는 없고 지금은 사라져 버린 안성관아에서 이루어진 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글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막연히 ‘안성군청’이라고만 지칭하여 현 안성1동사무소로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부 관련 글에서는 자료 이미지로 현 안성1동사무소의 사진을 올려놓은 경우도 있어 계속하여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성에서는 삼일운동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인물로 프랑스인 공안국(孔安國, Antonio Combert, 1875~1950)신부의 예를 듭니다. 공신부님은 1900년 안성에 부임하여 1932년 용산신학교로 떠날 때까지 32년간 안성에 머물렀으며 안성구포동성당과 안법고등학교를 만들고, 안성에 최초로 포도를 들여와 재배하는 등 안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삼일운동 당시에도 안성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에도 안성의 지도자들에게 독립운동 방법에 대해 자문해주는가 하면 일제의 보복으로부터 독립운동 참가자들을 성당으로 피신시켜 보호해 주기도 한다.(2017.6.18.

인터넷 자치안성신문)

위 신문에 실린 것처럼 많은 지역의 자료에는 공안국 신부가 안성삼일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6년 3월 28일 <동아일보>에 실린 회고록에 보면 당시 그는 안성에 있지 않고 천안에 있었으며 천안 사람들을 상대로 비폭력으로 운동을 하고 횃불을 들고 하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안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쫓기는 군중들을 성당으로 피신시키고 프랑스 국기를 게양하여 일경들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는 와전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체가 공안국 신부나 안성삼일운동의 가치를 낮추는 일은 아니지만 당시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짜 독립운동가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성' '김정수' 형제처럼 가짜라는 많은 증거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아직 많은 관공서 기록물에 진짜 '김진성'과 가짜 '김진성'이 뒤섞여 독립운동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성에서는 이러한 가짜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로도 잘 검증하여 진정성 있는 독립유공자 만이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의 공훈을 가로채 독립운동가가 되는 삶이 있는 반면 진정한 독립운동가가 기록을 찾지 못하여 아무런 공훈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성에서는 2016년부터 '안성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인물'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2017년 『안성의 독립운동가』라는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 자료집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 인물 발굴에 나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표문 중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안성 관련 판결문은 525건인데 안성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는 181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344명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훈을 받지 못한 미포상자 29명의 이유와 이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 251명 중 169명이 포상되었지만 82명이 미포상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2019년 3.1운동 100주년까지 이들에 대한 포상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가급적 많은 인원이 포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보훈처 포상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인지 국가보훈처에서 포상기준을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현재 미서훈자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넷째, 약 300만명이라는 삼일운동 참가자 수 가운데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정 직업군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기생들이 삼일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안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1919년 4월 3일 <매일신보>를 보면 안성의 만세운동 소개 기사에 '기생들도 만세'라는 소제목으로 뽑을 정도로 많은 안성의 기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삼십일일 오후 네 시쯤 되어 안성조합 기생 일동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시작하매 안성부내 각처에서 일시에 소통되어 군중 천여 명과 같이 연합하여 기를 일제히 들고 군청과 경찰서와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만세를 부르고…'

위 기사와 같이 안성의 기생들은 삼일운동을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기생들 중 누가 주도 하고 누가 참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기생 일동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기생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안성의 기생 숫자는 수십 명에 불과한데 신문에 기사화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질 정도가 되면 후에 탄압을 받았을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기생의 특성상 본인의 행적 및 후손을 찾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 직업군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안성3.1운동의 전개양상과 기념사업의 추이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논문의 제목이 '안성 3.1운동의 특징과 기념사업' 임에도 안성 3.1운동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타 지역과는 다른 안성지역 3.1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 정 토 론 ④

이혜영, ‘화성 3·1운동과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토론

지정토론자 / 한 동 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이혜영, '화성 3·1운동과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토론

이혜영 선생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의 전시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2013년 이후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사업'에 관여해왔다. 따라서 화성시 독립운동 및 3.1운동에 대한 자료와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화성시 미포상 독립운동가 발굴에 따른 포상 및 현장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글은 화성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성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하지 않은 동족마을의 강한 결속력에 의한 만세시위의 확장력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즉 송산면 사강장 시위의 주도세력이 남양홍씨 참의공파라는 점과 우정·장안면 만세시위의 주도세력이었던 연안차씨 강렬공파와 한각리 경주최씨 계림군파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화성지역 독립운동 기념사업에서 역사콘텐츠 개발사업 가운데 자료수집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미포상 독립운동유공자 가운데 사강리 김봉룡이 실제 홍복용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화수리 송성호의 순국사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독립유공자로 서훈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새로운 자료발굴에 더하여 현장감 있는 증언채록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마운 일이다.

그럼에도 논평자로서 역할 차원에서 질문보다 수원과 연관하여 몇 가지 첨언하고자 한다.

1. 화성지역 3.1운동은 빛나는 승리의 항쟁이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3.1운동으로 입은 일본 측 피해는 군인-부상(3명), 헌병-사망(6명, 평남), 부상(88명), 경찰-사망(2명, 경기도), 부상(64명)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 2명을 처단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송산면 사강리 노구찌(野口廣三) 순사부장의 처단과 우정면 화수리 가와바타(川端豊太郎) 순사의 처단이다.

또한 우정, 장안 전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 만세운동이라는 점이다. 당시 우정, 장안 지역은 전체 2천4백여 호로 만세시위 운동 참여 인원은 약 2,500여 명으로 한 집마다 한 사람이 참여한 셈이다.

화성지역 특히 삼괴지역 항쟁은 종교집단의 결집보다 실상 마을의 구장을 축으로 하는 마을 단위 동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종교기관의 주도가 아니라 전통적인 동(洞) 단위, 특히 동족마을을 단위로 하는 주요 성씨의 경쟁과 결집력을 주요 동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주곡리, 석포리의 항쟁 주도세력은 버들 차씨로 일컬어지는 연안차씨들이다. 주곡리와 석포리는 이들 연안차씨들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으며, 수촌리의 경우 수원백씨의 동족마을의 성격이 강하고, 독정리는 단양우씨, 어은리는 해풍김씨 등 동족마을 단위의 동원이 주요 축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실상 이 지역 항쟁은 종교집단이 운동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민의 투쟁이었다. 대다수 지역민의 투쟁에 참여함에 따라 공격적인 투쟁노선을 지향한 격렬한 항일운동 시위가 일어났던 곳이다. 화수리 항쟁은 일본 순사를 처단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 경찰서 주재소를 방화한 유일한 곳이다. 이러한 측면의 적극적 부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 및 화수리주재소를 복원하여 승리의 항쟁지로 활용해야 한다.

2. 한국의 대표적 3.1운동 순국 사적지이다.

특히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은 일제의 만행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에 화성지역의 3.1운동은 제암리 학살사건 등 주민의 피해 현장으로 우선적으로 주목되었고, 이 지역 3.1운동은 제암리 순국유적지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제암리 뿐만 아니라 고주리를 비롯하여 화수리, 수촌리 등 일제의 야만적 보복행위로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좀 더 확장된 연구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일제는 이 사건을 단순 소요사건이 아닌 내란죄로 규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강리 항쟁과 화수리 항쟁의 주역들은 징역 15년에 처해지는 등 가혹한 형을 받았다.

따라서 제암리 순국유적지는 이 지역을 아우르는 항쟁의 역사와 일제의 야만적 비인간적 행태를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처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찾는 역사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욱 규모 있고 알찬 내용의 전시, 교육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수원시는 2018년 1월 24일(수)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거행하였다. 시민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전문가와 학생, 종교단체, 시민사회와 공직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100명을 추진위원으로 추천하고, 향후 사업 계획과 100명의 추진위원과 조직을 승인하고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미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시민 단체들의 발의로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건립위원회>를 조직하여 1억을 모금하여 임면수 선생 동상을 건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7년 11월 17일 제정하였다.

이에 추진위원회에서는 독립유공자 발굴 및 편찬 사업, 시민참여형 다양한 행사, 교육 프로그램운영,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화성지역은 오산과 더불어 수원의 3.1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더 나아가 평택과 안성지역을 포함하는 경기남부 지역의 3.1운동과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사족

3.1운동에서 시위군중의 조직과 동원에서 오일장과 장날의 역할과 기능은 대단히 중요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장날의 확인은 결정적인 상황 판단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1911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에 따르면 수원에는 城內場(4일 개시), 城外場(9일 개시), 오산장(3.8), 발안장(5.10), 안중장(1.6) 등 5개의 장시가 개설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이래 전통 장시의 개일일은 음력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1938년 1월 1일부터 일제는 음력 장날을 양력으로 바꿔 개시하도록 강제되었다. 이 당시 수원군 지역의 장시는 반월장(1, 6), 사강장(2, 7), 남양장(3, 8), 오산장(3, 8), **수원장(4, 9)**, 조암장(4, 9), 발안장(5, 10) 등이 운영되었다. 따라서 1919년 3.1운동 당시 장날은 음력으로 계산되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송산지역 만세시위는 3월 26일부터 시작하여 28일까지 지속되었다. 3월 28일(음 2. 27)은

사강 장날(2.7)이었다. 또한 향남면 발안은 3월 31일(음 2. 30) 발안 장날(발안장 5.10)을 이용한 시위였다. 장날 시위는 우선 장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쉽게 시위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충동적이고 단발적인 시위 형태일 가능성도 크다.

우정.장안면의 4월 3일(음 3. 3) 만세시위는 장날이 아닌 경우다.

더욱이 삼괴장은 1910년 폐쇄되었다가 1930년대 개설되었는데, 조암장(삼괴장)은 4.9장이다. 따라서 장날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세시위라는 점에서 앞의 사강과 발안의 만세시위가 장날을 이용하여 크게 일어났던 점과 비교된다. 더욱 마을단위로 조직적인 동원의 형태로 항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노구찌 고조(野口廣三)는 사강경찰관 주재소의 순사가 아니라 3·1운동 당시 수원경찰서 소속 순사부장이었다. 그는 1919년 3월 26일 송산면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고 조사하기 위해 사강경찰관 주재소로 파견을 나온 인물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수원의 동공원에 <노구찌 경찰관 순직비>를 세웠다.

발안주재소 순사보 조희창(趙熙昌), 사강주재소 순사보 조종환(趙鐘桓), 김학응(金學應) 등 한국인 순사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M • E • M • O

M • E • M • O